



고려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2011. 12. 1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대학 자체평가의 배경과 목적	1
2. 대학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3
3. 대학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조직	4
II. 대학 개황	7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7
가. 설립목적	7
나. 교육목표	7
2. 중장기 발전계획	7
3. 주요 연혁	8
4. 행정조직 및 기구표	12
5. 교무위원 현황	13
6. 교원 현황	14
7. 직원 현황	14
8. 학생 현황	15
9. 주요 시설 및 설비 현황	15
10. 결산 현황	16
가. 예·결산 합산 재무제표 현황	16
나. 법인회계 예·결산서	16
다. 교비회계 예·결산서	17
III. 대학전체평가	18
1. 자체평가 실시 방법	18
가. 자체평가의 대상	18
나. 자체평가의 자료	18
다. 자체평가의 지표	18
2. 연구 영역	21
가. 연구비 수주액	21
나. 국제 논문수	24
다. 국내 논문수	27
라. SCI Impact Factor	29
마. 피인용수	30

바. 기술이전 수입액	32
사.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34
3. 교육 영역	36
가. 교수당 학생수/교수 확보율	36
나. 기숙사 수용률	39
다.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41
라. 학생당 교육비/교육비 환원률/세입 중 납입금 비중	42
마. 세입중 기부금	45
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47
사. 인턴십	48
아. 취업률	51
자. 중도 포기율	52
4. 국제화 영역	54
가. 외국인 교수 비율	54
나. 외국인 학생 비율	56
다. 파견 교환학생 비율	59
라.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61
마. 영어강좌 비율	63
5. 대학전체평가 결과	64
가. 연구 영역	64
나. 교육 영역	66
다. 국제화 영역	67
IV. 부설연구기관 평가	68
1. 평가목적	68
2. 평가기준 및 방법	68
가. 평가기준	68
나. 평가방법	68
3. 평가대상 연구소 현황	69
4. 평가위원	71
5. 평가일정	72
6. 평가결과	73
가. 평가결과 등급기준	73
나. 연구소 포상 및 지원제도(안)	74

I. 서론

1. 대학 자체평가의 배경과 목적

2008년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해당 대학이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대학평가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대학의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동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고(제5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 이러한 규칙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격년제 실시 의무로 2011년도에는 12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대학자체평가를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전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 인식 뿐 아니라 몇 가지 배경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대학교육협의회, 2009.4). 첫째,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대학평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했다. 종래의

평가는 하향식 권위주의적 평가로 대학발전 및 운영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상향식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종래의 대학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형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자들이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자체평가 시스템에서는 대학 스스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분야의 공인된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과정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자가진단 및 평가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종래의 대학평가는 외부에 의한 수동적인 평가였고, 평가결과가 대학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학자체평가에서는 대학 자신이 중심이 된 능동적인 평가를 지향하며, 자체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가 자신의 발전역량을 키우는데 연결됨으로써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UNESCO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질 보증체제의 구축은 대학평가의 국제적인 동향이다. 종래의 평가는 국내 대학 간 경쟁에 치중하는 것이었고, 질 보증과도 연계되지 않는 형식적인 평가였다. 새로운 자체평가 시스템은 대학의 역량에 따라 자체평가 시스템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스스로 확정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의 발전 목표를 글로벌하게 세운 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질 보증을 위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의 발효와 연계된 대학자체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필요성이 정책적(대학자율화 정책기조와 대학 경쟁력 강화), 사회적(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국제적(고등교육의 질 보증체제 구축, 대학평가의 세계적 표준화)인 동향과 연계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2008년부터 대학자체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사업(공고 2008.7.18)을 통해 총 9개 대학을 시범대학으

로 선정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의 개발, 평가 지표 및 기준개발, 교직원 연수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자체평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일선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대학 운영결과와 통합하여 자체평가 종합보고를 통해 모범사례를 보급.확산한 바 있다(성태제 외, 2009).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성과정보 관리 및 평가체제 개선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별도로 발주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정보관리와 대학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3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컨설팅 팀으로 하여금 30개 신청대학들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체평가의 법적인 의무이행과 정부정책에 직면하여 모든 대학들이 자체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하여 평가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 대학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대학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대학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기점검 평가체제 구축, ②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 자체평가의 연계, ③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및 신뢰성 제고 등 세 가지이다.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교의 위상과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고려대학교는 2002년 이래 ‘국제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대학발전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교육, 연구,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2009년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는 단과대학 중심의 평가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본교의 행정 분권화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각 단과대학이 발전 비전을 국제적 위상 제고에 두는 한편 국내 최고의 단과대학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011년에 실시된 금번 자체평가도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 각 분야 최고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둘째,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는 국내외 주요대학 평가의 공통지표를 도출

하여 지표별 목표값과 국내 경쟁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표에 대한 학교 전체 차원의 책임 부서를 선정하여 해당 지표의 현황 파악(벤치마킹 대학과의 비교), 연 단위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각 분야별 지표 향상을 위한 책임의식 고취를 유도하도록 한다.

셋째,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는 교내 부설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각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넷째, 고려대학교의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을 위한 피드백과 자원의 재분배 등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양식에 따라 공개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본교의 발전지표에 대한 성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목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활용된다. 그리고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요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적 선택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대학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조직

1) 자체평가위원회

교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평가팀장을 당연직으로, 약간 명의 교수를 추가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평가팀 과장 및 직원을 간사로 임명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심의 및 확정
- ② 자체평가 실시 및 후속 조치 수립
- ③ 기타 자체평가 관련 주요 사항 심의

[표 1] 대학전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명단

구분	직위	성명	위촉기간	비고
위원장	교무부총장	강선보	2011. 9 - 2012. 2	
부위원장	기획예산처장	김동원	"	
위원	교무처장	명순구	"	
위원	대외협력처장	조용성	"	
위원	연구처장	남기춘	"	
위원	국제처장	이재원	"	
위원	산학협력단장	김상식	"	
위원	화학과 교수	전승준	"	
위원	약학대학장	박영인	"	
위원	기획평가팀장	유현근	"	
간사	기획평가팀과장	홍준석	"	
간사	기획평가팀직원	김효현	"	

2)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자체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자체평가 총괄 수행자를 위원장으로 주요 부서별 팀장급을 위원으로 임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평가팀, 연구진흥팀 직원을 간사로 임명하며,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본교 평가 방향 및 관련 사항 제시
- ② 평가 항목 및 세부 지표 개발 및 연구
- ③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개발 및 연구
- ④ 자체평가위원회 실무 지원
- ⑤ 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⑥ 연도별 지표값 및 통계 확인
- ⑦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표 2] 대학전체평가 자체평가실무위원회 명단

구분	소속	성명	위촉기간	비고
위원장	기획예산처장	김동원	2011. 9 - 2012. 2	총괄
위원	기획평가팀장	유현근	"	실무총괄
위원	교무지원부장	김도성	"	교무
위원	연구진흥팀장	김문규	"	연구논문
위원	홍보팀장	송인식	"	평판도
위원	국제교류팀장	박시흥	"	국제분야
위원	산학기획부장	신복호	"	연구비
위원	기획평가팀과장	홍준석	"	목표관리
간사	기획평가팀직원	김효현	"	대외평가
간사	기획평가팀직원	김지애	"	통계
간사	연구진흥팀	김정현	"	연구소평가

II. 대학 개황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가. 설립목적

고려대학교는 국권을 잃어가면서 민족이 위기에 처했던 1905년에 교육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구한다는 신념(教育救國)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황제의 하사금과 教育救國의 뜻을 받들어 이용익 선생이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이후 인촌 김성수 선생이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이 땅에 근대 고등교육을 체계화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이를 고려대학교로 개명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 민족지성을 양성하는 민족의 대표사학이 되었다. 설립 이후 역사의 전환점마다 고려대학교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과 국가를 지켜낸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왔고,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해 왔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발전과 민주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과정에서 고려대학교는 가장 한국적인 대학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우뚝 서왔다.

나. 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학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주도할 민주 시민적 교양과 고도의 전문 역량을 갖춘 지성인,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 민족적 특성에 바탕을 둔 독창적 학문을 추구하는 창조적 탐구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중장기 발전계획

본교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

조”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사랑받는 대학’, ‘신뢰받는 대학’, ‘인정받는 대학’을 목표로, 도전과 도약의 ProACTIVE(Professional-Administration, Consistent Finance, Teaching, Initiative Research, Valuable Service, Environment and Welfare) KU를 위해 6개 영역에 19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연계 역량 강화’, ‘인문사회학 육성’, ‘첨단의학센터 건립 및 연구중심 대학병원으로의 도약’, ‘국제학의 세계적 교육기관으로의 도약’, ‘실질적 대학 분권화 및 행정 전문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변화와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혁신 행정’, ‘실천적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복지후생 및 친환경 캠퍼스 조성’, ‘지속가능한 기금조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전략 영역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2015”를 2011년 수립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차계획인 “KU Plan”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발전계획의 진척사항 점검, 당해 연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체점검 및 진단하고 있다.

3. 주요 연혁

조선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민족의 새 새벽을 열다 (1905-32)

- 1905년 5월 사립보성전문학교 개교. 설립자 충숙공 이용익, 초대 교장에 신해영 취임.
- 1907년 2월 제1회 졸업생 배출.
- 3월 교우회 창립총회.
- 1909년 3월 돈명의숙과 용희학교가 폐쇄되어 그 학생 44명을 인수 수용함.
- 1914년 6월 전동의 구교사를 철거하고 새 교사를 건축함.
- 1921년 12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 설립인가.
- 1922년 10월 교사를 송현동(전 천도교총부)으로 이전.

시련에 굴하지 않는 민족의 자존심 (1933-45)

- 1932년 3월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보성전문학교를 인수 경영.
- 1933년 5월 안암동에 교지를 확보하고 본관 신축 착공.
- 1934년 9월 안암동 새 교사(본관)로 이전.
- 1937년 5월 3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준공 개관.
- 1938년 7월 당시 동양 최대의 대운동장 준공.
- 1942년 9월 일제의 태평양전쟁 전시조치로 반년 단축 졸업.
- 1944년 4월 일제 당국의 강제로 교명을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
- 1945년 9월 8·15 해방을 맞아 교명을 보성전문학교로 환원.

고려대학교, 역사의 격변 가운데 빛난 희망 (1946-59)

- 1946년 8월 종합대학으로 설립인가.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정함. 초대 총장에 현상운 취임.
- 1947년 11월 ‘고대신문’ 창간.

- 1949년 9월 대학원 개원.
- 1950년 6월 6·25 한국전쟁으로 휴교.
- 1951년 9월 피난지인 대구시 원대동 임시 교사에서 개강.
- 1952년 9월 제2대 총장에 유진오 취임.
- 1953년 8월 한국전쟁 휴전으로 중앙중고등학교 교사를 빌려 개강함.
- 1954년 2월 본교 교사로 복귀.
- 10월 영자신문(*The Granite Tower*) 창간.
- 1955년 2월 4개 단과대학 17개 학과로 확장, 새 교가 제정.
- 1956년 9월 제3대 총장에 유진오 취임.

자유 · 정의 · 진리를 몸바쳐 이루어내며 (1960-69)

- 1960년 4월 본교생 약 3,000명이 자유당 정권의 불의와 독재에 항거 시작, 4월 혁명의 선봉이 됨.
- 1960년 9월 제4대 총장에 유진오 취임.
- 1961년 4월 4월혁명기념탑 제막.
- 1962년 5월 제1회 석탑축전.
- 박물관 준공 개관.
- 1964년 4월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으로 조직 변경.
- 5월 안암동 애기능 캠퍼스가 준공.
- 1965년 2월 고대정신의 상징 호상 제막.
- 10월 교우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교문 준공.
- 교연전 5개 종목 정기 개최.
- 제5대 총장에 이종우 취임.

한강의 기적, 그 중심에 서다 (1970-81)

- 1970년 10월 제6대 총장에 김상협 취임.
- 1971년 12월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합병, 우석대학교 및 부속병설기관을 흡수통합.
- 1972년 6월 경영관 준공.
- 12월 사범대학 신설.
- 1973년 6월 미국 워싱턴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1974년 1월 교육대학원에 계절제 정규과정 개설.
- 1975년 6월 제7대 총장에 차락훈 취임.
- 1976년 3월 우석병원을 대학부속병원으로 개칭.
- 1977년 8월 제8대 총장에 김상협 취임.
- 1978년 3월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신관 개관.
- 1980년 1월 조치원 분교 설치 인가.
- 1981년 1월 바이러스병연구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됨.

시대의 발전을 이끄는 고대의 중흥 (1982-85)

- 1982년 7월 제9대 총장에 김준엽 취임.
- 1983년 7월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의료원' 편제로 승격개편.
- 9월 구로병원 개원, 과학도서관 개관.
- 1984년 5월 법과대학 교사 준공.
- 8월 정경대학 교사 준공.
- 1985년 3월 제10대 총장에 이준범 취임.
- 1985년 5월 창립 80주년 기념식, 체육생활관 준공.

- 10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12월 낙산수련장 준공.

과학고대 연구고대의 힘찬 도약 (1986-93)

- 1987년 11월 조치원캠퍼스의 명칭을 서창캠퍼스로 정식 제정.
- 1989년 2월 서창기숙사 준공.
- 1989년 3월 제11대 총장에 이준범 취임.
- 1990년 5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과 학연협정 체결.
- 6월 제12대 총장에 김희집 박사 취임.
- 8월 서창도서관 준공.
- 11월 대학원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학·연·과·정 설치.
- 1991년 5월 제1회 '고대인의 날' 행사 개최.
- 안암병원 개원.
- 1992년 8월 북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더 넓은 세계로, 더 높은 꿈으로 (1994-99)

- 1994년 6월 제13대 총장 홍일식 박사 취임.
- 1995년 12월 생명공학 분야 국책대학원 육성 대상 선정.
- 1996년 6월 한국 산학연 종합연구단지 준공.
- 1997년 12월 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설립.
- 1998년 3월 재단법인 고려대학교 한국 산·학·연 종합연구재단 설립.
- 1998년 6월 제14대 총장에 김정배 박사 취임.
- 1999년 7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9월 교육부 두뇌한국21(BK21) 사업 선정(과학기술분야 5개 사업단, 핵심분야 10개 사업 팀)
- 12월 교육부 두뇌한국21(BK21) 사업 선정(인문사회분야 3개 연구단, 핵심분야 3개 사업 팀)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향한 토대구축 (2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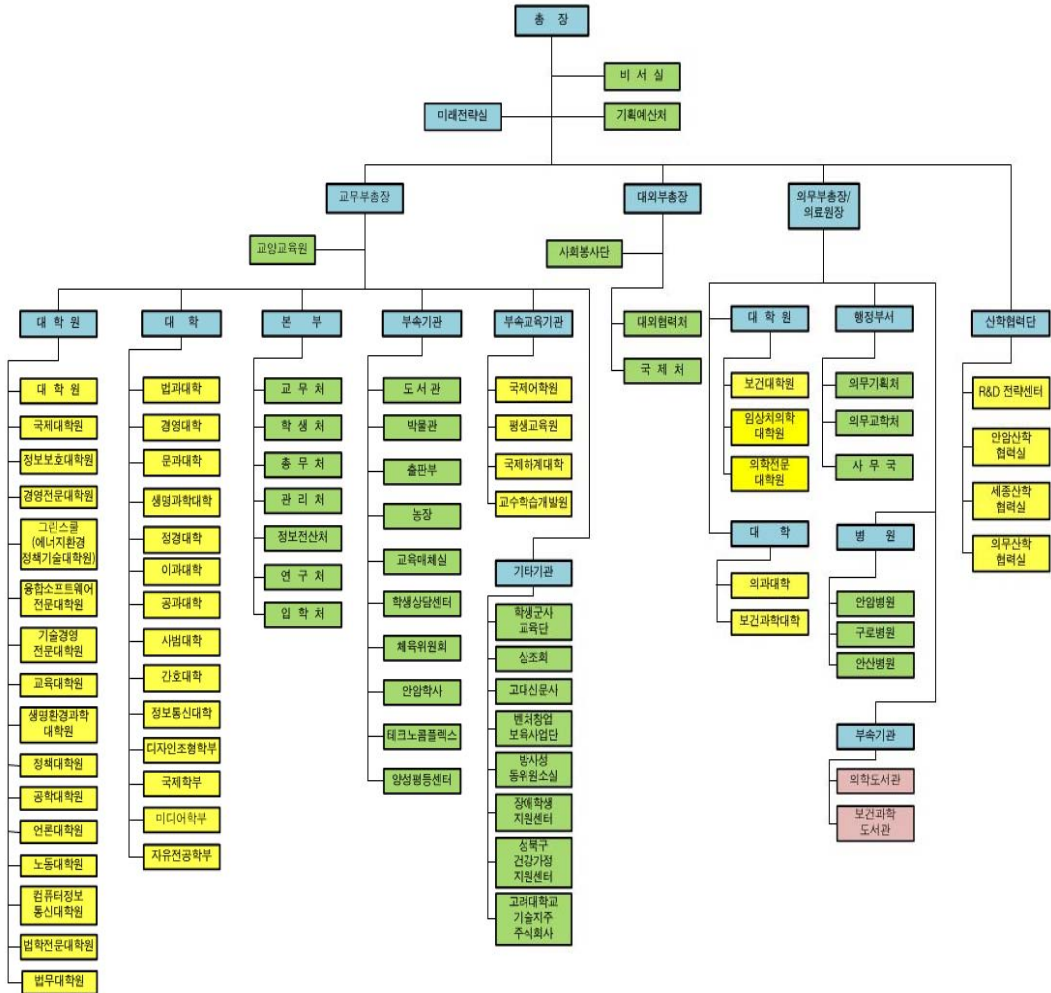
- 2000년 6월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KU-UBC Joint Program 양해각서 체결,
- Asiaweek지 아시아 종합대학 평가결과 14위 차지.
- 10월 대교협 학문분야평가 법학분야 최우수, 건축공학분야 우수 인증 획득.
- 2002년 10월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생활관(KU-UBC House) 준공.
- 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정」 체결.
- 2003년 2월 제15대 총장에 어운대 박사 취임.
- 10월 엘빈 토플러박사 초청 강연.
- 2004년 11월 개교 100주년 기념 『KU Global 비전 선포식』 .

민족고대 100년, 세계고대 1000년을 향하여 (2005-현재)

- 2005년 3월 개교 100주년 기념 노벨상 수상자 강연회.
외국인 전용 기숙사 CJ 인터내셔널 하우스 개관.
- 5월 백주년기념삼성관 개관
개교100주년 기념식 및 개교 100주년 기념 글로벌 UI 선포.
- 8월 경영대학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 :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인증 획득.
- 2006년 8월 국내대학 최대규모 화정체육관 준공.
- 9월 하나스퀘어 개장.
- 10월 더 타임즈 발표, 세계대학 중 150위.
- 12월 제16대 총장에 이필상 박사 취임.
- 2007년 3월 국내 최대 법학도서관 개관.
고려대 교우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 2008년 2월 제17대 총장 이기수 박사 취임.
- 3월 세종캠퍼스 명칭 선포.
- 10월 사회봉사단 발대, 입학사정관실 개편.
- 2009년 6월 교양교육원 신설.
- 7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14대 김정배 박사 취임.
- 10월 기술지주회사 설립.
- 2010년 2월 운초운선교육관 준공.
- 3월 언론학부를 미디어학부로 개편.
- 11월 의료원 비전 선포.
- 2011년 2월 제18대 총장 김병철 박사 취임.
- 3월 조형학부를 디자인조형학부로 개편.
- 8월 미디어관 준공.
- 10월 로봇융합관 준공.
- 11월 우정정보통신관 준공.

4. 행정조직 및 기구표

[그림 1] 고려대학교 조직도



[표 3] 행정조직 및 기구

(2011. 10. 01 안암캠퍼스 기준)

	교육기관				본부행정기관			부속/부속교육/ 1)기타기관		2)연구소
	대학원	대학	학부	실·부·팀	처·실	실·국·원	부·팀	기관	실·부·팀	
계	19	12	4	3)35	13	4)9	5)41	6)29	7)25	113

1)산학협력단 포함 2)국가지원 연구사업단, WCU사업단 및 BK사업단 제외. 3)학사지원부·팀 및 과학영재교육원, 공동기시설, 공동기센터, 식품과학종합 실험실, 기체관리실, 공동실험실, 공학교육혁신센터, 중등교원연수원, 의과학연구지원센터, 의대교수학습지원센터 4)비서실, 교양교육원, KRD사업단, 글로벌리더십센터 5)경력개발센터, 입학사정관실, 국제지원센터 포함 연구정보분석센터 제외 6)산학협력단, 기록자료실, 국제어학대학 포함 7)국제어학원 외 국어교육센터 및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중앙도서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산학협력단 4개부서 및 의무산학협력실 포함(R&D전략센터 제외)

※ 교육기관의 실·부·팀 단위 조직, 본부행정기관의 부·팀 단위 조직, 부속/부속교육/기타기관의 일부 기관, 실·부·팀 단위 조직, 단과대학 산하의 개별 연구소는 기구표에서 생략

5. 교무위원 현황

[표 4] 교무위원 현황

(2011. 11. 01기준)

연번	보 직	성 명
1	총장	김병철
2	교무부총장	강선보
3	대외부총장	윤영섭
4	세종부총장	김문석
5	의무부총장 서리 겸 의료원장 서리	손창성
6	대학원장 겸 미래전략실장	박정호
7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노형
8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진규
9	문과대학장	박길성
10	생명과학대학장 겸 생명환경과학대학원장	김정규
11	정경대학장	전명식
12	이과대학장	도성재
13	공과대학장 겸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장)대학원장	성만영
14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직무대행	엄창섭
15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이연숙
16	간호대학장	유호신
17	정보통신대학장 겸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겸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장	정지채
18	보건과학대학장	김용철
19	인문대학장 겸 인문정보대학원장	우철환
20	과학기술대학장 겸 의용과학대학원장	최승일
21	경상대학장 겸 경영정보대학원장	류문찬
22	약학대학장	박영인
23	정책대학원장	임혁백
24	공학대학원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김성현
25	국제대학원장	박성훈
26	언론대학원장	김승현
27	노동대학원장	박종희
28	보건대학원장	최재욱
29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임재석
30	행정대학원장	김상봉
31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32	교양교육원장	임홍빈
33	기획예산처장	김동원
34	교무처장	명순구
35	학생처장	이원규
36	총무처장	김규혁
37	관리처장	강경인
38	대외협력처장	조용성
39	정보전산처장	정원주
40	연구처장	남기춘
41	입학처장	최정환
42	국제처장	이재원
43	의무기획처장	이상학
44	의무교학처장	박건우
45	기획처장	이흥식
46	교학처장	정운용
47	사무처장	구상회
48	입학홍보처장	손영도
49	도서관장	유관희
50	산학협력단장	김상식

6. 교원 현황

[표 5] 교원 현황

(2011. 4. 안암캠퍼스 기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법학전문대학원	37	1	9	2	2	0	0	0	51
경영대학	47	0	13	4	21	2	0	0	87
문과대학	77	14	22	4	13	9	23	10	172
생명과학대학	67	3	25	2	2	0	0	0	99
정경대학	40	1	14	4	12	2	0	0	73
이과대학	41	3	18	0	8	0	0	0	70
공과대학	101	2	36	0	18	1	1	0	159
의과대학	222	38	84	11	33	17	0	1	406
사범대학	36	10	13	5	4	4	3	0	75
간호대학	0	7	0	3	0	2	0	0	12
정보통신대학	13	0	6	0	3	0	0	0	22
보건과학대학	28	2	6	2	4	3	0	0	45
디자인조형학부	5	1	1	0	0	0	1	0	8
국제학부	3	0	2	0	1	1	0	0	7
미디어학부	7	0	4	2	2	0	0	0	15
대학원	9	0	1	0	6	2	0	0	18
국제대학원	8	1	2	0	0	0	0	0	11
정보보호대학원	9	0	2	0	2	0	0	0	13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4	0	0	0	0	0	0	0	4
그린스쿨	7	0	0	0	0	0	0	0	7
기술경영전문대학원	9	0	1	0	0	0	0	0	10
합계	770	83	259	39	131	43	28	11	1,364

7. 직원 현황

[표 6] 직원 현황

(2011. 9. 1. 안암캠퍼스 기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총계
계	213	99	60	9	381

8. 학생 현황

[표 7] 학생 현황

(2011. 10 안암캠퍼스 재학생 기준)

대 학 (정월내)		대 학 원				
구 분	인원	구 분	과 정 별 인 원			
			박 사	석박사 통합	석사	계
법 과	576	대학원	1,395	430	3,111	4,936
경 영	1,726	경영대학원	0	0	1	1
문 과	3,605	국제대학원	14	0	251	265
생명과학	1,915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3	11	18	32
정 경	1,905	경영전문대학원	0	0	558	558
이 과	754	교육대학원	0	0	1,089	1,089
공 과	3,392	생명환경과학대학원	0	0	171	171
의 과	416	정책대학원	0	0	298	298
사 범	1,714	공학대학원	0	0	146	146
간 호	235	언론대학원	0	0	160	160
정보통신	464	노동대학원	0	0	139	139
디자인조형학부	47	법무대학원	0	0	222	222
미술학부	31	그린스쿨	8	3	27	38
조형학부	124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0	0	19	19
국제학부	290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0	0	160	160
미디어학부	403	정보보호대학원	36	7	152	195
언론학부	0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	0	48	48
보건과학	1,251	보건대학원	0	0	107	107
자유전공학부	103	임상치의학대학원	0	0	72	72
소 계	18,951	의학전문대학원	0	2	153	155
		법학전문대학원	0	0	339	339
		소 계	1,456	453	7,241	9,150

※ 교육대학원은 계절제 17명 포함, 경영전문대학원 공동학위자 제외

재학생 합계 (학부 + 대학원)	28,101
-------------------	--------

9. 주요 시설 및 설비 현황

[표 8] 교사(校舍) 시설 확보 현황

기준년도	보유면적(m ²)					합계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2011	410,962	90,001	62,069	97,900	31,941	692,873
2010	398,325	75,120	61,177	98,087	41,814	674,523

10. 결산 현황

2010 회계년도 학교회계 자금결산 총괄표
(2010. 3. 1 ~ 2011. 2. 28)

가. 예·결산 합산 재무재표 현황

[표 9] 예·결산 합산 재무재표 현황

(단위 : 천원)

수입구분	당해 연도 예산(A)	전년도 추가경정예산(B)	결산(C)	차액(B-C)
법인회계 (a)	66,039,280	64,149,599	64,073,126	76,473
교비회계 (b)	664,649,282	663,800,168	664,427,494	-627,326
내부거래제거 (c)	5,321,000	5,556,316	13,114,234	-7,557,918
합계(a+b-c)	725,367,562	722,393,451	715,386,386	7,007,065

나. 법인회계 예·결산서

[표 10] 법인회계 예·결산서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		결산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수입구분				
운영수입	17,061,000	25.8	29,000,622	45.3
- 전입금	14,828,000	22.5	8,935,427	13.9
- 기부금	110,000	0.2	15,273,971	23.8
- 국고보조금	0	0	0	0
- 교육외수입	2,123,000	3.2	4,791,224	7.5
자산 및 부채수입	2,703,850	4.1	2,821,833	4.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6,274,430	70.1	32,250,671	50.3
자금수입합계	66,039,280	100	64,073,126	100
지출구분				
운영지출	10,931,028	16.6	9,874,406	15.4
- 보수	876,940	1.3	757,251	1.2
- 관리운영비	836,416	1.3	1,031,420	1.6
- 연구학생경비	0	0	0	0
- 교육외비용	0	0	322	0
- 전출금	8,517,672	12.9	8,085,413	12.6
- (예비비)	700,000	1.1		
자산 및 부채지출	10,560,480	16	46,523,913	72.6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4,547,772	67.5	7,674,807	12
자금지출합계	66,039,280	100	64,073,126	100

다. 교비회계 예·결산서

[표 11] 교비회계 예·결산서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		결산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수입구분				
운영수입	592,662,471	89.2	567,278,531	85.4
- 등록금수입	374,925,517	56.4	364,288,657	54.8
- 전입금	85,706,614	12.9	63,422,625	9.5
- 기부금	57,464,200	8.6	50,822,008	7.6
- 국고보조금	8,812,292	1.3	9,573,875	1.4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25,770,798	3.9	28,290,999	4.3
- 교육부대수입	16,705,647	2.5	18,209,611	2.7
- 교육외수입	23,277,403	3.5	32,670,756	4.9
자산 및 부채수입	50,149,475	7.5	62,194,347	9.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1,837,336	3.3	34,954,616	5.3
자금수입합계	664,649,282	100	664,427,494	100
지출구분				
운영지출	530,089,252	79.8	473,788,672	71.3
- 보수	254,801,233	38.3	236,205,691	35.6
- 관리운영비	55,366,681	8.3	50,924,460	7.7
- 연구학생경비	197,419,429	29.7	176,996,084	26.6
- 교육외비용	13,518,561	2	9,222,768	1.4
- 전출금	0	0	439,669	0.1
- (예비비)	8,983,348	1.4		
자산 및 부채지출	134,560,030	20.2	154,342,147	23.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	36,296,675	5.5
자금지출합계	664,649,282	100	664,427,494	100

III. 대학전체평가

1. 자체평가 실시 방법

가. 자체평가의 대상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 기타 운영은 내부와 외부의 재화, 인적자원이 동원되며, 이와 같은 대학의 활동과 기능 중 ‘평가 대상과 범위 선정’은 대학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본교 자체평가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춧돌인 단과대학(부)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교육, 연구, 국제화 각 영역별로 본교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내대학의 단과대학과 비교함으로써, 본교 각 분야의 위치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2011년도 평가에서도 2009년도와 같이 **연구, 교육, 국제화** 분야에 대한 본교의 전반적인 위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본교가 추구하는 비전(“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조”)과 전략이 2011년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부설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활동 실행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자체평가의 자료

2011년 고려대학교 자체평가의 자료는 본교 종합정보시스템,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대학알리미 자료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본교의 현재 위치를 자가 점검하고자 한다.

다. 자체평가의 지표

대학 평가는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 발전의 척도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각종 평가의 결과는 우수 인력의 유치 및 배출, 펀드 모금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의 관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교를 둘러싼 주요 대학평가를 분석하면 연구, 교육, 국제화, 평판도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평판도는 각 주관 평가기관마다 특색 있게 진행되어 대학의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표 12] 주요 대학평가 현황 분석

구분	중앙일보	QS, 조선일보-QS	THE(Times Higher Education)	상해 교통대학 평가
대상 국가	국내	세계, 아시아	세계	세계
평가 특징	다양한 지표(32개), 비교적 신뢰할만한 검증절차	평판도 비중 50% (조선-QS는 40%)	피인용수 비중 32.5% 평판도 비중 34.5% 해외대학평가 유일 연구 수입 평가(약 8%)	연구 실적만으로 평가 노벨상(필즈메달)수상 실적, Nature/Science誌 게재 실적 등 최상위 수준의 연구실적 평가
지표 구성	연구: 32.9% 교육여건/재정: 27% 평판/사회진출도: 20% 국제화: 20%	연구: 60% 교육수준: 20% 졸업생평판: 10% 국제화: 10%	연구: 65% 교육여건: 30% 국제화: 5%	연구: 100%
데이터 수집	대학기관에 요청, SCI 논문 DB 수집, 설문조사	대학기관 요청, SCOPUS 논문 DB 수집	대학기관에 요청, SCI 논문 DB 수집, 설문조사	SCI 논문 DB 수집 노벨상/필즈메달 수상 내역
검증	교과부, 정보공시, 사학진흥재단, 연구재단 등 비교적 신뢰할만한 검증절차	대학 제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절차 없음	대학 제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절차 없음	대학 제출자료 없음
결과 발표	9월	조선일보-QS: 4월 QS: 9월	9월	9월~10월

본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 대학발전을 위한 피드백과 자원의 재분배 등을 위해 학내 자체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과대학 평가가 이루어져 지표별 목표값 설정과 국내 경쟁대학과의 비교를 통한 각

단과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파악하고, 둘째,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발굴, 주관 부서를 선정하여 전담하도록 하며, 셋째, 학술 DB 분석 체계 정립, 교수 연구업적 강화, 평가 순위 상승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본교의 전반적인 평가 혁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교는 이미 2009년 단과대학평가를 통해 본교 각 단과대학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좀 더 많은 지표를 사용한 진일보된 학교 기관 전체평가를 통해 본교의 현재 위치를 각 분야에서 조망하였다. 2011년 본교의 자체 평가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13] 각 영역별 지표 기준

영역	지표명	기준	
		기준	비고
연구	연구비 수주액	1~12월, 산단 입금액 기준	전년도(1~12월) 연구비 입금액
	국제 논문 수	1~12월, SCI급 또는 Scopus급	전년도(1~12월) 발표 저자역할별 가중치 적용(정보공시제 기준)
	국내 논문 수	1~12월, 연구재단등재(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수 1명 : 1편 • 저자 수 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저자 실적 : 2/(n+2)편 - 교신저자 실적 : 2/(n+2)편 - 공동저자 실적 : 1/(n+2)편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 총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
	SCI Impact Factor	Thomson 자료	2010 JCR(Journal of Citation Report)
	피인용 수	Thomson 자료	Web of Knowledge
	기술이전 수입액	1~12월, 산단 입금액 기준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1~12월	
교육	교수당 학생 수/교수 확보율	4월	
	기숙사 수용률	4월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결산 기준(5월)	
	학생당 교육비/교육비 환원률/세입중 납입금 비중	결산 기준(5월)	
	중도 포기율	1학기, 2학기	
	세입 중 기부금	결산 기준(5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결산 기준(5월)	
	인턴십 비율 취업률	1학기, 2학기 건보 DB 확인	
국제화	외국인 교수비율	4월, 외국인 전임교원	
	외국인 학생비율	4월, 학부, 대학원 외국인 학생	
	파견 교환학생 비율	학부, 대학원 외국대학 파견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1학기, 2학기	
	영어강좌 비율	1학기, 2학기	

2. 연구 영역

가. 연구비 수주액

① 전년도 결과 및 2011년도 목표

본교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내부 제외)은 2010년 117,194천원이며, 2011년 목표는 11.38%(14.14%) 증가한 133,760천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4] 본교 교원당 연구비 수주액

구분	2011년도 목표	2010년도 평가 결과	비고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	133,760천원	117,194천원	2010년 대비 약 14% 증가

② 주요 대학 현황

본교 연구비 수주액은 서울대의 약 1/3이며, 1인당 연구비로 보면 서울대의 1/2 수준으로 아직 많이 미흡하다. 경쟁대학인 연세대와 비교하면 총액 약 1,100억원 차이가 나며, 성균관대에 비해서도 총 연구비와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 규모에서 뒤지고 있다.

경쟁대학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 연구비와 민간 지원 연구비 규모 모두에서 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주요 대학 2010년 연구비 수주 현황(2011년 대학알리미, 단위 : 천원)

대학명	전임교원수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및 외국	합계	교원당 연구비
고려대	1,364	135,728,467	5,324,946	18,800,495	159,853,908	117,194
서울대	2,140	449,721,709	0	31,589,257	481,310,966	224,911
연세대	1,545	216,964,066	5,115,029	46,517,358	268,596,453	185,072
성균관대	1,249	120,376,203	4,189,090	45,501,670	170,066,963	138,131

③ 2011년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표 16] 안암 vs. 의대 총 연구비 수주 현황

총 연구비 수주액 ¹⁾	안암	의대	합계
2010	1,493억원	294억원	1,787억원
2011(1~8월)	991억원	228억원	1,219억원

1) 연구비에 BK21사업비 포함

[표 17] 안암 vs. 의대 교원당 연구비 수주 현황

교원당 연구비 수주액 ¹⁾	안암	의대	비고
2010	1.64억원	0.67억원	
2011(1~8월)	1.09억원	0.52억원	

1) 연구비에 BK21사업비 포함

의대에서 8월까지 수주한 금액이 전년 전체 대비 약 78%인 228억원으로 기타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의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비 수주가 탁월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금년도 본교 연구비 수주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연구 수주 지원을 위한 전담연구원을 채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경영학 BK21사업 1위 지속을 위하여 신입교원 연구활동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경대학에서는 신규 SSK사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한국연구재단 위주의 기관에서 다른 수주기관을 다변화하고 산학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생명과학대학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대형과제 수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과대학 및 공과대학에서는 대형 연구과제 수주 준비와 국책사업 사전기획 참여를 독려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모임(연구회) 분야를 확대하여 융합 분야에 대한 활동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보건, 의료, 공학의 융합을 통한 본교만의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④ 2011년도 목표 대비 추진 현황

㉞ 연구비 수주 역량 향상을 위한 학내 시스템 구축과 업적 평가

- 정보수집, R&D 연구과제 컨설팅, Matching fund 확보, PI선정 등 주요과정을 시스템화

- 과제기획위원회(가칭) 상설화 검토
- 산학협력단(R&D전략센터)과 연구처의 협력 추진
-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연구기획 및 수행 방법론 교육
-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비 수주액을 직위승진 및 호봉승급의 필수사항으로 반영 (교무처 협의)
- 산학협력 전담교수 도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정보공시 반영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개선(교무처 협의)
- 교원 1인 1과제(연구책임자) 수행 캠페인 실시
- ㉠ 교내 신진 연구인력 및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
 - 창의적 Leading Group 모임 및 교류 활성화
 - 소규모 Bottom-up 선행연구 지원강화
 - 수요자 중심의 기획과제를 발굴(50개 과제)
 - 연구기획 단계부터 인적, 물적 지원 실시
- ㉡ 교외 연구자원 확보
 - 민간부분 Matching fund 사전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협력 방안 강구
 - 동문기업, 기술이전기업, 산학관 입주기업, MOU 체결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분야별 안배하여 적극적으로 교외 연구자원을 확보
 - R&D 대형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Star급 교수 영입과 전직 고위관료 영입을 통해 대형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 연구기획 역량 강화
 - Lab Coordinator 전문가 양성과정 등 연구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이를 통해,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연구 분야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한 연구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
- ㉣ 연구 환경 개선
 -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연구 통계분석, 그래픽 디자인 지원 등 연구 관련 서비스 제공
 - 연간 5억원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부터 현장 평가 대비 등 전주기적 서비스를 지원
- ㉤ 산학연 인적교류의 장 마련
 - 연구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동향 등 연구정보 교류 활성화를 도모
 - 실무자간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과제 진행과 외부 R&D 정책 등

정보 수집

나. 국제 논문수

① 전년도 결과 및 2011년도 목표

[표 18] 국제 학술 논문 발표 현황

대학명	2010년도	2011년도 목표	2011.8 현재
사범대학	13.1	14.41	18.82
전문대학원	10.81	11.89	9.78
경영대학	20.88	22.97	18.5
문과대학	10.75	11.83	8.65
이과대학	86.65	95.32	70.05
생명과학대학	87.29	96.02	68.61
공과대학	214.08	235.49	153.42
정경대학	38.74	42.61	22.28
보건과학대학	38.29	42.12	19.07
간호대학	3.66	4.03	1.65
의과대학	334.56	368.02	138.51
국제학부	8.83	9.71	3
정보통신대학	45.96	50.56	11.51
미디어학부	5.62	6.18	1
법과대학	1	1.1	0
디자인조형학부	0	0.1	0
부설연구기관	0.47	0.52	0
부속교육기관	0	0.1	0
대학원	0	0	42.93
총합	920.69	1012.98	587.78

2011년도 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한 수치로 설정하였으며, 8월 현재 약 5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Web of Science가 실제보다 약간 늦게 등재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 목표치인 1,012.98편은 무

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범대학은 이미 31%를 초과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7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이과대학, 생명과학대학도 무난히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의과대학, 정보통신대학 등은 분발이 요구된다.

② 주요 대학 현황

본교는 2011년도 중앙일보 평가 중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 수” 지표(20점 만점)에서 14.4점(1.93편)으로 전체 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대 17.5점(2.73편), 연세대 15.9점(2.29편), 성균관대 16.4점(2.44편)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본교가 경쟁대학과 비교했을 때 교수 1인당 SCI 논문게재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 게재 수” 지표(20점 만점)에서는 10.5점(0.37편)을 취득하여 전체 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경쟁대학인 서울대 10.1점(0.18편), 연세대 10.4점(0.32편), 성균관대 10.5점(0.37편)도 본교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9] 중앙일보 평가 결과(과학기술 교수당 국제논문 수)

과학기술 교수당 국제논문 수	2011 실값(편)	2011 점수	2011 순위	2010 실값(편)	2010 점수	2010 순위	순위 변화
POSTECH	3.4	20	1	3.7	20	1	0
서울대	2.7	17.5	2	2.5	16.3	4	2
성균관대	2.4	16.4	3	1.9	14.3	6	3
KAIST	2.3	16.0	4	3.0	17.9	2	-2
연세대(서울)	2.3	15.9	5	2.1	14.9	5	0
고려대(안암)	1.9	14.4	6	1.9	14.0	7	1
서강대	1.9	14.5	7	2.6	16.4	3	-4
인하대	1.7	13.7	8	1.5	12.8	9	1
중앙대(서울)	1.7	13.5	9	0.9	11.0	19	10
한양대	1.7	13.4	10	1.6	13.2	8	-2
경희대	1.5	13.0	11	1.2	11.8	10	-1
세종대	1.5	12.9	12	1.2	11.7	13	1
부산대	1.4	12.3	14	1.2	11.8	11	-3
광운대	1.3	12.0	15	1.0	11.2	18	3
경북대	1.2	11.9	16	1.1	11.6	14	-2
고려대(세종)	1.2	11.8	17	0.7	10.3	29	12
영남대	1.2	11.7	18	0.8	10.6	25	7
울산대	1.2	11.6	19	1.1	11.6	15	-4
건국대	1.2	11.5	20	0.9	10.8	21	1

논문 실적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되며, 본교 전임교원이 학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논문실적이 한국연구재단 KRI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 실태조사 조사기간 내에 학교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보고가 안 되어 학교 전체 등급 평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계열에 상관없이 2010년도에 전임교원 전체가 발간한 국제논문은 총 편수, 교원당 게재 편수에서 주요 경쟁 대학에 아직까지 모자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0] 주요 대학별 국제학술지 게재 현황(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전임교원수	국제학술지 게재 총편수 ¹⁾	교원당 게재 편수
고려대	1,364	862.7	0.63
서울대	2,140	1,766.7	0.83
연세대	1,545	1,107.4	0.72
성균관대	1,249	1,044.9	0.84

1) SCI(E), A&HCI, SSCI, SCOPUS에 게재한 논문

③ 전문 학술 논문 양적 증가를 위한 본교의 노력

본교의 법학 관련 영문학술지 “Korea Univ. Law Review”와 “Asian Business Lawyer”가 법령문헌 정보베이스인 Westlaw에 등재될 예정으로, 향후 SSCI 등재를 목표로 법전원에서 노력중이며, 외국 대학과 협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학 분야는 국제 핵심 우수저널 게재 편수 순위를 집계하는 Univ. of Texas의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국내 유일하게 95위안에 들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우수 교수 초빙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해외 우수 학술대회 참가를 독려, 지원하여 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논문 투고 시 출간 과정 지원 등 전인적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국제학술지 출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과학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은 자체적으로 최다 SCI논문 발표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정경대학 경제학과에서는 2011년도 AMES(세계계량경제학회)를 본교에서 개최하고 주관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교류할 수 있는 장과 평판도 향상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본교 연구의 질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2011년도 목표 대비 추진 현황

정보통신대학과 공과대학에서는 자체 MBO를 시행하여 본교의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 의과학과를 신설하며 기초의학 교수 증원, 논문 포상지원 강화와 임상교수와 박사 졸업생에게 국제논문게재를 권장할 예정이다. 학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연구결과 제출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 정보 분석을 연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 2011년도 6월에 연구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정식으로 가동되는 9월부터 각 학과, 대학별 경쟁력 있는 분야와 연구역량을 분석하여 집중 지원, 투자할 분야를 선정하여 2012학년도부터 연구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국내 논문수

① 전년도 결과 및 2011년도 목표

[표 21] 국내 학술 논문 발표 현황

대학명	2010년도	2011년도 목표	2011.8 현재
부설연구기관	4.1	5.33	6.25
이과대학	3.02	3.93	3.79
전문대학원	9.59	12.47	10.07
디자인조형학부	1	1.3	1
간호대학	6.84	8.89	6.63
공과대학	77.13	100.27	52.62
경영대학	23.9	31.07	15.2
정경대학	48.36	62.87	27.7
사범대학	89.21	115.97	47.5
미디어학부	19.08	24.8	10.03
문과대학	175.07	227.59	89.23
국제학부	10.58	13.75	5.17
보건과학대학	13.41	17.43	6.27

법과대학	93	120.9	40.17
생명과학대학	23.38	30.39	10.05
정보통신대학	11.43	14.86	4.97
의과대학	140.04	182.05	42.73
대학원	0	0	4.47
총합	749.14	973.87	383.85

2011년도 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한 수치로 설정하였으며, 8월 현재 약 3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 학술지가 많이 발간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달성률로 보면 많은 분발이 필요하다.

② 주요 대학 현황

본교는 2011년도 중앙일보 평가 중 “인문사회체육 교수 당 국내논문 게재 수”지표(15점 만점)에서 7.8점(0.84편)을 취득하여, 경쟁대학인 서울대 7.7점(0.83편), 연세대 7.8점(0.85편), 성균관대 8.1점(0.91편)과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국내학술지 게재를 더욱 독려하면 연 1편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향후 3년 이내에는 이를 달성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전체로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와 비교하면 전체 게재 편수에서 앞서고 있으며, 교원당 게재 편수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비해 많이 게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주요 대학별 국내학술지 게재 현황(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전임교원수	국내학술지 게재 총편수 ¹⁾	교원당 게재 편수
고려대	1,364	748.0	0.55
서울대	2,140	931.1	0.44
연세대	1,545	716.5	0.46
성균관대	1,249	512.5	0.41

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③ 국내 학술 논문 양적 증가를 위한 본교의 노력 및 추진계획

본교 ‘고려법학’과 ‘안암법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등록되어 법학 관련 연구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경우 자체 자율예산을 확보하여 우수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대학원생의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 제도와 아울러, 졸업 시 연구재단등재학술지 게재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정교수에 대한 호봉승급 기준을 강화하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을 엄격히 시행하고, 자체 발전기금에서 연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 SCI Impact Factor

① 전년도 결과 및 2011년도 목표

[표 23] 국제 학술논문 발표 SCI Impact Factor 현황

대학명	2010년도(IF)	2011년도 목표(IF)	2010.8 현재(IF)
사범대학	26.4	29.3	39.97
공과대학	1100.2	1221.3	1075.33
국제학부	3.6	4	3.45
경영대학	48.6	54	40.3
전문대학원	21.5	23.9	17.09
정경대학	49.2	54.7	38.99
생명과학대학	913.4	1013.9	628.97
이과대학	1229.3	1364.5	780.55
보건과학대학	249.5	276.9	118.4
의과대학	3759.6	4173.2	1623.38
문과대학	38.6	42.8	11.17
간호대학	15.6	17.3	3.3
정보통신대학	250.3	277.8	22.24
미디어학부	8	8.9	0.42
법과대학	0.2	0.2	0
디자인조형학부	0	0.1	0
부설연구기관	1.3	1.5	0
부속교육기관	0	0.1	0
대학원	0	0	280.99
총합	7,715.3	8,564.4	4,684.55

2011년도 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가한 수치로 설정하였으며, 8월 현재 약 5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사범대학은 국제 논문수 증가율(131%)과 아울러, 논문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IF도 136%가 증가하여 이미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논문수 달성률이 65%인 공과대학은 IF 달성률이 88%로 양보다 질 위주의 논문이 발간되고 있음을 수치 비교로 알 수 있다.

② 학술 논문 질적 증가를 위한 본교의 노력 및 추진계획

본교는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지향적인 융복합 연구분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기획,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review 논문 활성화 유도, 분야별 top 최상위급 논문 게재 지원 강화, 해외 저명학자와의 공동연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 피인용수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24] 중앙일보 평가 결과(교수당 피인용수)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5.7점(7.26편)	6위	6.7점(6.53편)	5위
서울대	6.9점(15.22편)	3위	7.3점(8.08편)	3위
연세대	6.2점(10.36편)	4위	7.3점(8.19편)	2위
성균관대	5.9점(8.69편)	5위	6.7편(6.28편)	7위

본교는 2011년도 중앙일보 평가 중 “교수당 SCI, SSCI, A&HCI 피인용수” 지표(10점 만점)에서 전년도 5.7점에서 6.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6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다만, 금년도 평가 기준은 중앙일보 측의 사정으로 최근 5년간이 아닌 최근 2년간의 피인용 논문수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기준이 전년보다 축소되어 평가되었다.

② 피인용 관련 지표가 중요한 이유

[표 25] 중앙일보, THE평가, QS평가 지표 비교

평가	관련 지표	가중치	DataBase	기간	논문/피인용 수 산정 기준	저자 역할별 피인용 수 계산 방법
중앙일보	교수당 최근 5년간 피인용수	2.8%	Web of Science - SCI(E), SSCI, A&HCI	최근 5년 (2006~2010)	해당 논문의 5년간 피인용 수 합산	논문 수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 *단독저자: 해당 논문 피인용수 *저자 수 2명 이상: -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피인용 수 × 2/(n+2) - 공저자: 논문 피인용 수 × 1/(n+2)
THE	Citations per Papers	30.0%	Web of Science - SCI(E), SSCI, A&HCI	최근 6년 (2005~2010)	해당 논문의 6년간 피인용 수 합산	해당 논문의 피인용 수가 각 대학에 동일하게 counting
QS	Citations per Faculty	20.0%	SCOPUS	최근 5년 (2006~2010)	해당 논문의 5년간 피인용 수 합산	해당 논문의 피인용 수가 각 대학에 동일하게 counting

[표 26] 피인용수 관련 지표 국내 대학 비교

구분	QS 세계대학평가 교원당 피인용수 (가중치 20%)		THE 세계대학평가 논문당 피인용 수 (가중치 30%)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원당 피인용 수 (가중치 2.8%)	
	점수	지표 순위	점수	지표 순위	점수	지표 순위
고려대	300위권 밖(미공개)		30.0	342위	6.75	5위
POSTECH	80.9	69위	92.3	41위	10.00	1위
KAIST	45.3	232위	47.1	252위	6.67	6위
서울대	55.9	100위	44.0	264위	7.30	3위
연세대	300위권 밖(미공개)		37.0	310위	7.34	2위
성균관대	300위권 밖(미공개)		24.0	367위	6.66	7위

피인용수 관련 지표의 가중치는 국내대학 평가인 중앙일보평가는 총 2.8%만 차지하나 QS세계대학평가 및 THE세계대학평가에서는 각각 20%, 30%의 가중치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대학으로는 포스텍이 중앙일보 국내대학평가 뿐만 아니라 세계대학평가에서 독보적으로 우수

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피인용 지수 향상을 위한 본교 차원의 노력

피인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용횟수 연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학문동향 및 추세, 평가에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을 때 피인용 관련 지표는 점점 증대할 것이며, 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질 높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교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으며, 본교도 이러한 스타교수 영입에 학교 차원의 다양한 전략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바. 기술이전 수입액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27] 중앙일보 평가 결과(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5.7점(3,516천원)	16위	5.8점(4,561천원)	12위
서울대	6.7점(5,912천원)	9위	6.1점(5,296천원)	11위
연세대	5.6점(3,425천원)	17위	5.7점(4,227천원)	16위
성균관대	5.7점(3,637천원)	14위	6.3점(5,804천원)	9위

2011년도 중앙일보 평가 중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지표(10점 만점) 점수는 전년도 5.7점에서 5.8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16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고려대 및 연세대(각각 0.1점 상승)등 타 대학보다 산업체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성균관대가 전년에 비해 점수가 월등히 상승(0.6점)한 점으로, 산학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요 대학 현황

기술이전 건수는 2010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수입료는 2010년도까지 기술이전에 대해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엄밀히 보면 당해연도의 기술이전 건수와 수입료는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서로 밀

접해 있다.

본교는 2010년도 64건의 이전 건수와 약 12.8억원의 기술이전 수입을 달성하여 경쟁대학에 비해 적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술이전 건수가 비슷한 성균관대가 본교보다 약 2배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을 거둔 것은 양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교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기술이전의 양적,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28] 주요 대학별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액 현황(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
고려대	64건	1,281,215천원	20,018천원
서울대	75건	2,382,442천원	31,765천원
연세대	67건	1,733,006천원	25,865천원
성균관대	60건	2,542,000천원	42,366천원

③ 기술이전 수입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현황

[표 29] 최근 경쟁대학 동향 및 목표

지표명	기술이전 수입액(단위 : 원)		
'09년값	1,550,472,300	'10년값	1,298,146,037
국내 경쟁대학 동향	구 분	2009년	2010년
	한양대	1,925,000,000	2,603,000,000
	연세대	1,502,000,000	1,708,000,000
	포항공대	912,000,000	1,722,000,000
'11년 목표값	2,167,000,000	전년대비 상승률(%)	67% (연구비 회수율 1%)

2010년도 기술이전 계약 일부가 2011년도로 변경되어(약 5억), 전년도 대비 약 67% 인 약 22억원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현재 약 18억원의 기술이전 수입액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약 82%를 달성하여, 2011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기술이전 향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본교의 노력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을 기존 2팀(IP전략, 기술이전) 체계에서 기술분야

별 팀 체제 운용으로 기술분야별 추세에 맞춘 기술이전 전략을 진행할 것이며, 진행단계별 외부인사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작업으로 기술이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Lab. 컨설팅 기반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하여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각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본교에 좀 더 유리하게 계약(비용, 계약상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30] 중앙일보 평가 결과(과학기술 교수당 지식재산 등록 현황)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6.8점(1.38점)	3위	6.6점(1.91점)	3위
서울대	1.5점(0.12점)	67위	5.9점(1.30점)	9위
연세대	6.0점(0.93점)	8위	5.9점(1.33점)	8위
성균관대	5.6점(0.72점)	11위	6.1점(1.45점)	6위

2011년도 중앙일보 평가 중 “과학기술 교수당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지표(10점 만점) 점수는 전년도 6.8점에서 6.6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3위를 유지하였다. 연세대도 본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는 전년 대비 4.4점(1.18점)이나 상승하여 지식재산권 등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도 전년 대비 0.5점(0.73점)이 상승하여,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지식재산권 등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본교 및 타 대학 현황

지식재산권 확보에 따른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대학의 등록금외 재원 보충이 이루어져, 본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원 대비 등록 건수도 약 50%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 순수한 학

문의 성과인 논문, 저역서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인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1] 주요 대학별 특허출원 현황(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¹⁾	국내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해외특허 출원	해외특허 등록
고려대	573	328	84	22
서울대	772	369	245	70
연세대	554	262	122	26
성균관대	511	240	81	40

1) 본, 분교 통합 공시

[표 32] 최근 경쟁대학 동향 및 목표

지표명	교원당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09년값	국내 8.0% 해외 0.5%		'10년값		국내 11.3% 해외 0.8%
국내 경쟁대학 동향	구 분		2009년		2010년
	연세대		국내 5.5% 해외 0.4%		국내 7.2% 해외 0.5%
	한양대		국내 8.1% 해외 0.9%		국내 10.8% 해외 1.0%
	포항공대		국내 27.3% 해외 36.6%		국내 11.6% 해외 12.2%
'11년 목표값	국내 13.0% 해외 1.0%		전년대비 상승률(%)		국내 15% 해외 25%
연도	국내/국외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포스텍
2009	국내	230	202	203	134
	국외	12	14	23	57
2010	국내	328	265	283	183
	국외	22	20	27	61

본교는 2009년 국내특허등록 230건에서 2010년 328건으로, 해외특허등록은 12건에서 22건으로, 각각 국내 98건과 해외 10건이 증가하여, “교원당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도 국내 3.3%, 해외 0.3%가 증가하였다. 주요 사립대학들도 지적재산권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기술이전 활용 전단계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에 있어 각 대학이 활발히 움

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본교 차원의 노력 및 계획

본교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상위 25% 대학의 7배, 중위권 대학의 15배에 해당하며, 해외출원 건수는 미국 상위 25% 대학과 비슷하다.

R&D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지향적 연구와 발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검색서비스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IP컨설팅 제도를 운용하여, 각 기술별 가치를 파악하고 출원 비용 절감과 기술 보안에 따른 우수기술에 대한 특허 집중 지원으로 기술사업화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3. 교육 영역

가. 교수당 학생수/교수 확보율

① 기준 및 목표

본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교원 임용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8년 162명, 2009년 150명, 2010년 71명의 전임교원을 선발하여 학생에 대한 지도 강화, 교육 질 개선, 연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와 경쟁하고 있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교원확보율이 100% 이상(편제정원 기준)으로 본교도 전임교원 확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표 33] 교원당 학생수(편제정원 vs. 재학생)

지표명	교원 1인당 학생 수 - 편제정원 대비(재학생 대비)				
2009.04.01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24.98명 (32.47명)	2010.10.01 값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24.04명 (32.34명)
	겸초	23.65명 (30.2명)		겸초	22.19명 (29.07명)
국내 경쟁대학 동향 (전임, 전체) 2008.04.01 → 2009.04.01 → 2010.04.01 → 2011.04.01	고려대	26.3명 → 25.0명 → 25.0명 → 25.1명			
	서울대	18.3명 → 16.0명 → 15.9명 → 16.1명			
	연세대	23.1명 → 23.5명 → 23.7명 → 23.4명			
	성균관대	45.7명 → 46.4명 → 24.0명 → 23.8명			
	이화여대	26.3명 → 26.7명 → 26.7명 → 27.6명			
2011.10.01 목표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24.44명 (32.21명)	2011.10.01 현황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24.81명 (32.73명)
	겸초	22.68명 (29.14명)		겸초	22.95명 (29.54명)

[표 34] 교원 확보율(편제정원 vs. 재학생)

지표명	교원확보율 - 편제정원 대비(재학생 대비)				
2009.04.01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92.44% (77.18%)	2010.10.01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94.34% (76.25%)
	겸초	97.64% (83.01%)		겸초	102.17% (84.83%)
국내 경쟁대학 동향 (전임, 전체) 2008.04.01 → 2009.04.01 → 2010.04.01 → 2011.04.01	고려대	87.1% → 92.4% → 94.5% → 93.9%			
	서울대	114.7% → 130.6% → 127.8% → 130.2%			
	연세대	97.5% → 99.0% → 99.4% → 101.6%			
	성균관대	59.7% → 60.9% → 103.6% → 103.5%			
	이화여대	79.4% → 79.7% → 80.4% → 81.5%			
2011.10.01 목표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96.55% (79.80%)	2011.10.01 현황 전체 (의학계열 제외)	전임	95.10% (78.54%)
	겸초	104.07% (88.21%)		겸초 (예상)	102.83% (87.03%)

② 주요 대학 현황

[표 35] 주요 대학 교원당 학생수 및 교원 확보율(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전임교원수	학부편제정원	학부재학생	대학원편제정원	대학원재학생	편제정원계	재학생계	교원당 학생수		교원확보율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고려대	1,364	15,381	20,073	14,625	14,189	30,006	34,262	22.0	25.1	93.9	83.1
서울대	2,140	12,902	16,626	17,157	17,723	30,059	34,349	14.0	16.1	130.2	115.8
연세대	1,545	13,961	18,781	16,235	17,441	30,196	36,222	19.5	23.4	101.6	85.1
성균관대	1,249	14,137	19,424	11,459	10,311	25,596	29,735	20.5	23.8	103.5	90.0

2011년도 4월 기준, 본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중 학부편제정원이 제일 많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원생의 편제정원 및 재학생 규모가 서울대, 연세대보다 적다. 서울대가 교원당 학생수가 16.1명(재학생 기준)으로 세계적인 대학 수준으로 올라 있는 반면에, 본교 25.1명, 연세대 23.4명, 성균관대 23.8명으로 세계적인 수준인 15명 내외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약 920명의 교원 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③ 외국 대학 현황

2010년 The Times 세계대학평가 세계 95위인 Univ. of Arizona는 학생 29,700명, 교원 1,705명, 세계 106위인 Purdue Univ.는 학생 40,000명, 교수 2,700명으로 학생과 교원의 비율이 각각 17.4:1, 14.8:1로 본교 25.1:1(2011. 4월 기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교수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0위권 종합대학의 교육여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제정원 대비 약 11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④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

탁월한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교원 초빙을 통해 교원 관련 지표 개선은 물론, 연구 관련 지표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교무처장, 기획예산처장, 연구처장을 포함한 각 학문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우수교원 초빙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학급 최우수 인재, 지방 국립대 우수 연구 인력, 각 대학 junior급 우수 연구 인력, 재외 우수 인재 등의 섭외를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의과대학 임상교원 수를 늘려 의료원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며, 셋째, 이와 같은 교원 확보를 위해 본교 교원의 해외 출장 및 학술회의 참여시 본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5년 4월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110%를 달성하여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 기숙사 수용률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36] 중앙일보 평가 결과(기숙사 수용률)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0.6점(4.97%)	83위	1.1점(8.59%)	82위
서울대	1.5점(12.07%)	62위	1.6점(12.70%)	62위
연세대	1.6점(13.20%)	56위	2.5점(20.30%)	39위
성균관대	2.5점(21.17%)	28위	2.6점(21.87%)	31위

본교는 2011년도 2월 943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프런티어관을 준공하여 기숙사 수용률이 3.62%p 증가하여 위와 같이 2011년 중앙일보 평가 중 기숙사 수용률에서 0.5점 상승하였으나, 본교와 경쟁하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도 각각 0.63%p, 7.10%p, 0.70%p 향상되었다. 특히,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에 대규모 기숙사가 신축되어 평가 순위가 17위, 전체 지표값이 0.9점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

② 본교 및 타 대학 현황

[표 37] 주요 대학 기숙사 수용률(2011년 대학알리미)

대학명	재학생수 ¹⁾	실수	수용인원	기숙사수용률
고려대	32,066	984	2,164	6.7
서울대	27,859	3,234	5,762	20.7
연세대	26,546	2,601	5,080	19.1
성균관대	24,163	2,451	5,023	20.8

1) 특수대학원생 제외

서울대는 관악산 교지 확보율이 높아 3천실 이상의 기숙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특수대학원생이 본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기숙사 수용률 산식에 들어가는 재학생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최근 개교한 송도 캠퍼스에 기숙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기숙사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성균관대는 수원에 위치한 자연계 캠퍼스에 많은 기숙사가 확보되어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본교보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본교는 안암캠퍼스 단일 부지에 상대적으로 부지가 좁아 주요 대학에 비해 기숙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단기 및 중기 추진 계획

2011년부터 캠퍼스 부근 원룸을 기숙사로 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013년도에는 안암학사 관리동 주변과 최근에 매입한 (구)신광연립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신축하며, 2014년 이후에는 라이시움 주변을 개발하여 11.5%의 학생 수용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38] 본교 기숙사 확보 추진 일정

신축 위치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원룸 임대																								
2. 안암학사 관리동 주변 기숙사 신축																								
3. 법과대학 주변(신광연립) 기숙사 신축																								
4. 라이시움 주변 개발																								

④ 장기 계획

현재 정릉캠퍼스에 위치한 보건과학대학을 녹지캠퍼스로 이전하며, 정릉 캠퍼스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신축하여 연구중심대학 달성에 필요한 대학원생 복지와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다.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39] 중앙일보 평가 결과(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2.8점(210.84천원)	11위	2.8점(209.28천원)	9위
서울대	3.6점(474.31천원)	2위	4.1점(580.71천원)	2위
연세대	2.8점(213.34천원)	9위	2.8점(220.74천원)	6위
성균관대	2.5점(127.87천원)	28위	2.6점(151.13천원)	22위

2011년 중앙일보 평가 중 학생 당 도서자료구입비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와 연세대는 학생 1인당 약 21만원 ~ 22만원의 도서자료 구입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최근 대학의 등록금 상승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투자 자체가 힘들었던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대는 2010년도보다 약 10.6만원이 증가하여 평가 점수값이 약 0.5점 상승하게 되었다.

② 지표값 상승을 위한 대학의 노력

[표 40] 주요 대학 도서관 현황

대학	도서구입 예산 (천원)		장서수(책)	학술지(종)		직원수(명)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전자	인쇄	정규	비정규
고려대	6,963,211 (3위)	7,371,210 (2위)	2,353,761 (3위)	54,536	4,868	48 (4위)	15
서울대	18,324,754 (1위)	4,050,650 (8위)	4,438,503 (1위)	75,563	6,794	103 (1위)	21
연세대	7,871,804 (2위)	8,238,165 (1위)	2,204,990 (4위)	40,678	3,422	63 (2위)	55

본교의 전체도서구입 예산 규모는 국내 최고 수준이나 재학생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학생당 도서구입비 순위는 경쟁 대학교에 비해 다소 뒤쳐지고 있다.

2011년도 목표 금액은 225천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275,865천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존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국고 지원 금액의 확대(50,000천원 추가), 도서구입비 기부금 확대와 도서구입 부족 예산의 지원이 요구된다.

라. 학생당 교육비/교육비 환원률/세입 중 납입금 비중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41] 중앙일보 평가 결과(학생당 교육비)

대학명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8.4점(16,031천원)	6위
서울대	10.4점(28,247천원)	2위
연세대	9.6점(23,750천원)	4위
성균관대	8.3점(15,870천원)	7위

[표 42] 중앙일보 평가 결과(교육비 환원률)

대학명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5.0점(197.25%)	31위
서울대	6.3점(490.23%)	3위
연세대	5.5점(298.89%)	10위
성균관대	5.0점(195.62%)	32위

[표 43] 중앙일보 평가 결과(세입 중 납입금 비중)

대학명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6.3점(43.39%)	27위
서울대	7.8점(26.81%)	5위
연세대	6.5점(40.89%)	20위
성균관대	5.3점(54.69%)	37위

② 지표값 분석

학생당 교육비는 전체 교육비를 전체 재학생수로 나눈 것으로 전체 교육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가 합산된 것이다. 교비회계는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가 포함되며, 산학협력단 회계에는 산학협력비, 보조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이 포함된다. 즉,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경비(기계기구 등 제외)가 포함된다.

또한 교육비 환원률은 전체 교육비를 납입금(학생 등록금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등록금 외의 재원이 많은 대학이 유리한 지표이다.

세입 중 납입금 비율도 마찬가지로, 총 세입 중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3가지 지표는 학교가 얼마나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1년 중앙일보 평가 지표에서 본교는 2010년도 학생당 교육비가 약 16,000천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2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교육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 평균 2배 정도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어 비교적 건실하게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2011년도 목표 및 지표값 상승을 위한 대학의 노력

[표 44] 2011년도 목표(학생당 교육비/교육비 환원률/세입 중 납입금 비중)

지표명	학생당 교육비		
'11년 목표값	17,794천원	전년대비 상승률(%)	11.0%
지표명	교육비 환원률		
'11년 목표값	217%	전년대비 상승률(%)	10.0%
지표명	세입 중 납입금 비율		
'11년 목표값	38.6%	전년대비 상승률(%)	-11.0%

본교는 2011년도 학생당 교육비 17,794천원, 교육비 환원률 217%를 목표로 전년대비 약 10% 이상 좋은 지표값을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부설기관의 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둘째, 예산계정을 재분류하여 해당 교육비 증액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셋째, 수입 확충을 통해 교비회계 예산규모를 증대하고자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지원금, 자금 운용수입, 특별회계 사업수입, 수입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교수의 외부연구비 유치 활성화로 외부 연구비 수주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세입 중 납입금 비율은 낮을수록 유리한 지표로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1.0% 낮은 38.6%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사용 이월자금을 최대한 줄이고 적립금 인출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예산집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재원이 충분히 소진되어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관련 지표를 중점 관리하고자 한다. 이외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학교기업 수익 창출로 학생의 납입금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마. 세입중 기부금

① 타 대학 현황 및 연도별 지표값

[표 45] 중앙일보 평가 결과(세입중 기부금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3.5점(9.87%)	4위	4.2점(7.94%)	5위
서울대	3.1점(7.65%)	8위	4.1점(7.44%)	6위
연세대	2.9점(6.13%)	11위	3.5점(5.68%)	10위
성균관대	2.7점(4.54%)	16위	3.3점(4.97%)	13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2009년 결산 기준 본교 교비회계 세입은 4,758.4억원 이고 이중 기부금이 469.7억원으로 세입중 기부금 비율이 9.87%를 차지 하였지만, 2010년 결산 기준으로는 7.94%의 비율로 2009년 대비 약 1.93%p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경쟁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등은 6~7%대 의 비율이고, 성균관대는 5% 미만으로 본교가 경쟁대학에 비해 다소 높 은 기부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② 2011년도 목표

[표 46] 2011년 및 2012년도 세입중 기부금 비율 목표

지표명	세입중 기부금 비율		
	2011년 목표값	전년대비 상승률(%)	2012년 목표값
'11년 목표값	9.08%	전년대비 상승률(%)	14.4%
'12년 목표값	10.00%	전년대비 상승률(%)	10.1%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모금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기부메뉴판을 마련하여 모금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모 금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거액기부자 관리로 초거액 모금을 위한 모금캠 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과대학별 모금 활성화 지원을 통한 모 금주체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거액 모금을

활성화하며, 30~40대 교우 기부자 개발, 릴레이 장학금 등의 모금 아이템을 개발하여 소액 기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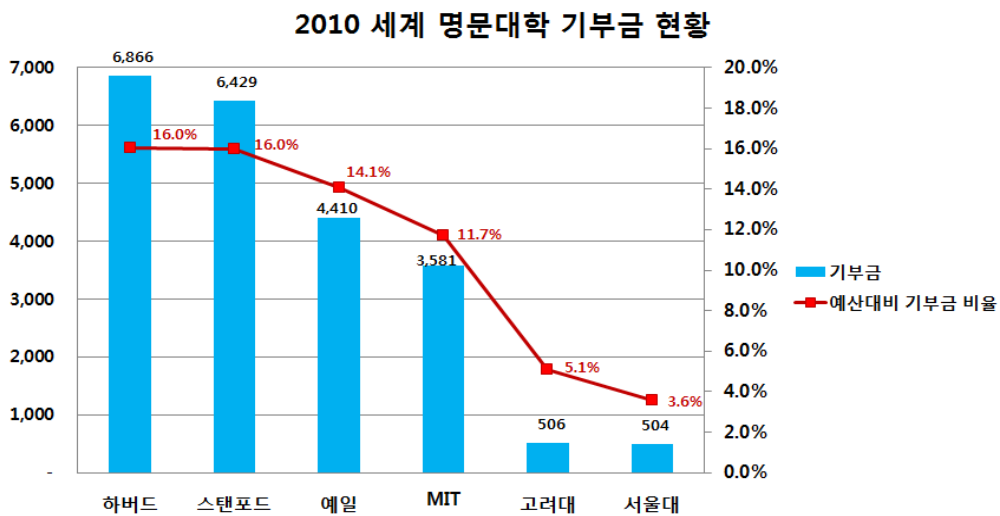
③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본교 차원의 노력

[표 47] 연도별 기부금 현황 및 목표(2008~2011년)

연도	기부금
2008년	325억원
2009년	470억원
2010년	506억원
2011년(목표)	575억원

기부금 모금 관련 부서인 대외협력부에서 자체 목표(MBO)를 설정하여 금년 2011년도에는 총 575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며, 9월 1일 현재 360억원으로 62.6%를 달성하여 기부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 작업, 지방교우회 방문, 기부자 캠퍼스 투어 진행,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작성, 홈페이지 제작, 릴레이 장학금 권유 DM 발송을 추진하였으며, 중저액 대상 100억 모금 실행 캠페인, 기부자 예우 강화, 기부자 네트워크 형성, 기부자 관리 시스템 구축, 기부자 친화형 장학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세계적인 대학의 기부금 비율 현황



[그림 2] 본교 및 세계 명문대학 예산 대비 기부금 비율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 등의 예산대비 기부금 비율은 5% 이하이지만,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MIT 등은 모두 전체 예산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이다.

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48] 중앙일보 평가 결과(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5.6점(18.71%)	16위	7.7점(16.96%)	17위
서울대	7.4점(24.03%)	6위	9.5점(37.48%)	2위
연세대	5.0점(17.02%)	23위	7.9점(18.30%)	13위
성균관대	6.5점(21.20%)	11위	8.1점(21.31%)	6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지표는 학부 등록금 징수 총액 대비 학부 장학금 총액으로 근로장학금, 정부지방자치단체장학금 등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에 대한 비율이다. 2010년도 학부 등록금 징수 총액은 1,535.4억원이며 이중 장학금 지급액은 287.3억원으로, 총 18.71%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2011년도 목표 및 노력

[표 49] 2011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목표

지표명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1년 목표값	19.5%	전년대비 상승률(%)	15.0%

등록금 환원률은 매년 0.5% 이상 확충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하며, 교내 배정된 장학금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95% 이상 소진하고, 근로장학금 예산을 축소하며 이를 일반장학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교외 장학금 확충을 위하여 과거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를 요청하는 릴레이 장학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

으며, 교외 장학재단과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외부 장학금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지원 국고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목적성 장학금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성과의 극대화와 장학금 확충 제고를 위해 동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기금의 상당부분이 장학금을 위한 재원으로 모금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많은 노력을 꾀하고 있다.

사. 인턴십

① 타 대학 현황 및 연도별 지표값

[표 50] 중앙일보 평가 결과(인턴십 비율)

대학명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인턴십 수행 학생수 (2010년도)
고려대	4.0점(1.22%)	47위	243명
서울대	0.3점(0.09%)	81위	80명
연세대	5.6점(2.23%)	26위	139명
성균관대	5.8점(2.47%)	24위	1,794명(누적계)

본 지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11년도부터 반영된 지표로 160시간(4주) 이상 현장 실습하여 학점에 반영되는 참여 학생 수 대비 재학생(예체능, 사범, 의약학계열 제외) 비율을 지표값으로 한다.

정보공시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성균관대, 중앙대 등 기업과 긴밀히 연결된 대학은 누적숫자가 많아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 연세대 등 연구지향 대학은 그 숫자가 아직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각 단과대학에서 2학점(2주)부터 10학점(4개월 이상)까지 다양하게 학점을 인정하고 인턴십의 전공연계성 확인 후 신청 ⇒ 실습(주로 방학중) ⇒ 해당 학기 학점 인정 과정으로 이어진다. 중앙대의 경우 4주 이상 인턴십을 교양과목 2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2011년도 목표 및 해외 대학 현황

[표 51] 2011년도 인턴십 학생수 목표

지표명	인턴십 학생수		
	'09년값	252명	'10년값
'11년 목표값	267명	전년대비 상승률(%)	10%

본교는 각 단과대학별로 기업인턴십 학점인정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중앙대의 경우와 같이 교양교육 차원의 교과목 신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인턴십의 경우 단과대학 위주로 실행 되며, 공과대학 등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매년 여름방학 중 이루어지고, 경영대학의 경우 1994년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매년 수십명의 인원이 “국제경영현장실습(3학점)” 교과목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

[표 52] 해외 대학 인턴십 운영 현황

대학명	인턴십 관련 현황
와세다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담당부서: Career Center에서 총괄, 단과대학 독자 프로그램도 운영 -학점인정 가능 -각 단과대학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와세다대와 OECD간 협정에 의한 인턴십, 경력센터를 통해 JICA해외사무소 인턴으로 근무가능 -취업으로 연결 : 바로 연결보다는 학생은 기업체근무 경험, 기업체는 이미지 제고 목적
홍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담당부서: Center of Development and Resources for Students 및 학과 -학점인정 가능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인디아, 브라질, 태국 등 다양한 국가, 기업체와 연계 -여행경비 대출 가능 -인턴십 참여를 권장

싱가포르 국립대	-인턴십 담당부서: NUS Overseas Colleges, Int'l Relations Office, some Faculties -학점인정 가능 -NUS Overseas Colleges Programs(해외현지 대학과 협정을 통해 교과이수와 인턴십참여 병행하는 프로그램), IARU와 네트워킹을 통한 인턴십, NUS Business School 해외인턴십 등 -장학금 지급됨(소요 비용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학교에서 부담)
-------------	--

④ 인턴십 확충을 위한 본교 차원의 노력

단과대학 특성에 맞춘 인턴십 교과목과 프로그램 개발이 지난 2010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었던 문과대학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0년 2명의 해외인턴을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파견국 상황에 따라 관련 영사관, 교우회 등을 접촉하여 2011년도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경대학은 각 학과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 예정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을 섭외하며 인턴십 수행기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경우 미주리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한인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실시되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학문분야별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도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꾀하고 있어 삼성, LG 등의 대기업과 산학협력인턴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인턴십 참가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배정, 글로벌리더십센터와 경력개발센터가 관련 주관부서로 지정되어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발의, 개별 인턴십 참가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모색, 관련 대학 및 교양교육 학점 연계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 취업률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53] 중앙일보 평가 결과(취업률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7.0점(64.6%)	8위	7.0점(64.9%)	12위
서울대	5.2점(54.2%)	36위	6.0점(59.8%)	25위
연세대	6.9점(64.0%)	10위	7.1점(65.5%)	11위
성균관대	7.1점(65.2%)	6위	7.8점(68.7%)	7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취업률 비율 및 순위지표는 졸업생 중 취업가능자 대비 건강보험 DB확인 취업자로 확인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졸업자(진학자 등은 제외)가 좋은 직장(건강보험 DB로 확인)에 취업이 되었는지 통계를 내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중요 지표로 사용된다.

즉,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얼마나 공급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외부에서 대학을 보는 주요한 잣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② 2011년도 목표

[표 54] 2011년도 본교 취업률 목표

지표명	취업률		
	'11년 목표값	71.4%	전년대비 상승률(%)

본교는 학생들의 조기 진로 설정을 위한 교과목 운영재개, 진로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취업 상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과 학생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

경영대학에서는 입학부터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경영대학 자체 KUBS Life Center를 2011년 3월 개설하여 관련 자료 제작과 배부, Career Library 운영, 진로와 학업 상담, 취업과 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경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우와 재학생간의 교우멘토링으로 대학생활과 졸업 후 인생 설계에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경대학에서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합격생 증대를 위하여 기존 고시반 운영 외에 3차 면접고사 강화를 위한 특강 실시와 더불어 모의 토론을 강화하여 인터뷰 심사 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과대학 등에서는 취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공학도를 위한 Career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원임용이 될 수 있도록 임용고사 준비실 운영, 임용고사 특강 활성화 사업, 주요 사립 중/고교에 본교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학교와 재외 한인 학교 교사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외에서 임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전문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미디어학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미디어 유관 산업으로 많은 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기자 분야와 영상 분야로 이원화된 관련 특강, 실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 중도 포기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55] 중앙일보 평가 결과 및 대학알리미(중도 포기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4.0점(1.47%)	6위	4.5점(1.40%)	3위
서울대	5.0점(0.0%)	1위	4.6점(1.29%)	2위
연세대	4.1점(1.28%)	3위	4.2점(1.73%)	4위
성균관대	4.1점(1.32%)	4위	3.8점(2.24%)	12위

정보공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는 매년 1.4 ~ 1.5%의 학생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다. 통상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 연세대 등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으나, 전공 등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경우 학생이 자퇴하는 예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② 본교 지표값 분석

[표 56] 본교 유형별 제적자 현황(세종 포함)

연도	미등록제적	휴학경과제적	자퇴제적	성적불량제적	계
2009	25	199	340	197	761
2010	27	180	370	181	758

중도 포기율은 학부생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등을 통칭하여 일컬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임) 대비 제적생(미등록 학생, 미복학생, 자퇴생, 기타 학칙에 의한 제적생) 비율로 낮을수록 좋은 수치이다. 전공, 학교 선택의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 다른 진로 설정 등의 이유가 많이 발생하여, 학생 지도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표이다. 제적된 유형을 살펴보면 약 50%가 본인이 학교를 자퇴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개 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휴학 경과제적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며, 성적불량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다만, 미등록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상담 및 장학제도 지원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2011년도 목표

[표 57] 2011년도 중도포기율 목표

지표명	중도 포기율		
	'11년 목표값	1.20%	전년대비 상승률(%)

중도 포기율은 낮을수록 유리한 지표로 본교는 2011년도에 전년대비 중도 포기율을 14.4% 낮춘 1.20%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적경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수강학점 12학점 미만 학기의 성

적경고는 제적대상 성적경고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학칙을 완화하며, 지도 교수제 활성화로 학생 개인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강화와 경제적 이유로 중도 포기하려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 자퇴자에 대한 재입학 요건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4. 국제화 영역

가. 외국인 교수 비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58] 중앙일보 평가 결과(외국인 교수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10.1점(7.62%)	36위	7.2점(7.25%)	47위
서울대	6.7점(4.99%)	54위	3.9점(3.93%)	66위
연세대	8.5점(6.39%)	43위	4.4점(4.47%)	63위
성균관대	10.7점(9.20%)	29위	8.1점(9.53%)	26위

중앙일보 평가 중 외국인 교수 비율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 연세대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 비율은 4~7%대로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성균관대는 9%대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가르치는 전임강사를 두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0명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본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2008년부터 시작된 WCU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2009년부터 외국인 교원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연구 결과의 세계화 진행에 있어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되었다.

[표 59]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지표명	외국인 전임교원 수				
	2009학년도 값 ()=전임강사	4.1	109명(45)	2010학년도 값 ()=전임강사	4.1
10.1		103명(41)	10.1		99명(39)
국내 경쟁대학 동향 2008.04.01 → 2009.04.01 → 2010.04.01 → 2011.04.01	고려대	86명(37) → 109명(45) → 103명(41) → 99명(37)			
	서울대	11명(0) → 40명(1) → 65명(2) → 84명(1)			
	연세대	73명(22) → 82명(23) → 96명(29) → 69명(29)			
	성균관대	68명(38) → 74명(0) → 112명(0) → 119명(0)			
	이화여대	49명(22) → 53명(31) → 55명(33) → 51명(27)			

② 2011년 목표

[표 60] 2011년도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 목표

지표명	외국인 전임교원 수		
	2011.10.01 목표	113명	2011.10.01 현황

본교는 2011년 10월 113명의 외국인 교원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12명이 부족한 101명의 외국인이 본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③ 외국인 교원 확보를 위한 본교의 노력

우수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교무처에서 실행하고 있다.

첫째, 연구 관련 지표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력이 뒷받침되는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를 초빙하고,

둘째, 초빙 정원 배정 시 외국인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셋째, 학문분야별로 외국인 교수 초빙이 바람직한 분야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넷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 교원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수립으로 2011년도 2학기부터 각 대학에 차기 충원시부터 외국인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학과 초빙 정원 요청 시 일정비율(인원)을 외국인으로 요청하도록 지침을 내렸

으며, 본부 초빙정원 배정시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별도로, 정착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전담 지원 조교 배정, 멘토 지정제, 상시 초빙 제도 운용, 해외 잡지 및 저널 광고 강화, 각종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2학년도 전기 초빙 관련 이미 10여분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여 모집 중에 있다.

나. 외국인 학생 비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61] 중앙일보 평가 결과(외국인 학생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10.1점(2.93%)	7위	9.8점(3.71%)	7위
서울대	10.7점(5.34%)	2위	12.4점(5.63%)	1위
연세대	10.5점(4.06%)	5위	10.4점(4.74%)	4위
성균관대	9.0점(5.36%)	12위	9.4점(6.19%)	8위

중앙일보 평가 중 외국인 학생 비율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대학인 서울대, 연세대의 학위과정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약 5% 내외로서 최근 들어 캠퍼스의 국제화로 도약하고 있다.

본교도 최근 들어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경쟁대학에 비하여 낮은 3.71%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본교를 포함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서 외국인 학부생 비율보다 외국인 대학원생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연구력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한 경우가 있어 우수하고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분야에는 외국인 대학원생이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과대학, 정경대학, 미디어학부 등의 대학원은 전체 재학생 대비 10% 이상의 외국인이 재학 중으로 국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도 7~9%대의 외국인 대학원생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과대학, 이과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등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좀 더 많은 리쿠르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중심이 되는 학부코스에는 영어강의의 부실, 국제적 서비스 지원 체계 부재, 영어 사용자 등에 대한 제반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외국인 학부생이 정식으로 국내 대학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62] 외국인 학생 비율 현황(대학원 및 학부)

구분	외국인 학생비율 (대학원)		
09년값	5.74%	10년값	6.81%
국내 경쟁대학 동향	서울대 7.45%, 연세대 7.02%, 성균관대 11.52%, 한양대 8.37%		
구분	외국인 학생비율 (학부생)		
09년값	1.38%	10년값	1.73%
국내 경쟁대학 동향	서울대 4.12%, 연세대 3.41%, 성균관대 7.3%, 한양대 6.08%		

[표 63] 대학원 외국인 학생 비율

단과대학	2009학년도(1,2학기 평균)			2010학년도(1,2학기 평균)		
	외국인	전체	비율(%)	외국인	전체	비율(%)
법과대학	20.5	320	6.41	25	342.5	7.3
경영대학	13.5	261	5.17	15.5	256	6.05
문과대학	77	671.5	11.47	91	711	12.8
생명과학대학	23	485.5	4.74	44.5	493.5	9.02
정경대학	33	365.5	9.03	38.5	338.5	11.37
미디어학부	6	69	8.7	6.5	61	10.66
이과대학	9	303	2.97	8.5	301.5	2.82
공과대학	53.5	1,123.5	4.76	59	1175.5	5.02
의과대학	5.5	533.5	1.03	6	505	1.19
사범대학	20	316.5	6.32	27.5	338.5	8.12
간호대학	0	45.5	0	0.5	54	0.93
정보통신대학	14.5	262.5	5.52	9.5	244.5	3.89
보건과학대학	0.5	52.5	0.95	1.5	73	2.05
안암소계	276	4,809.5	5.74	333.5	4,894.5	6.81

② 2011년도 목표 및 본교의 노력

[표 64] 2011년도 외국인 학생 비율 목표

지표명	외국인 학생 비율(대학원생)		
11년 목표값	7.50%	전년대비 상승률(%)	10.1%
지표명	외국인 학생 비율(학부생)		
11년 목표값	2.5%	전년대비 상승률(%)	44.5%

본교는 2011년 대학원생 7.50%, 학부생 2.5%의 외국인 학생 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6.81%, 1.73% 대비 10.1%, 44.5%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표 65] 외국인 학생 비율 향상을 위한 달성수단

구분	달성수단	추진실적 및 계획
1	외국인 재학생용 무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시행	한국어문화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한국어 수업을 1년간 무료 제공(2011년 9월부터)
2	외국 협정교에 입시 홍보 포스터 송부	중국내 우수 54개 대학 및 국제 협정교 220개 대학에 포스터 발송(매 학기). 주한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 외국대사관 및 재외공관에 홍보브로셔 발송
3	대학원 홈페이지의 중국어/일본어 Language Service 제공	입학 정보, 입학 절차 등 홍보
4	단과대학/학과별 외국인 유치 활동 활성화 및 재정지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국비 장학생 매년 20명 본교 유치
5	해외유학박람회 참가 홍보 확대	국립국제교육원 주최 및 개별 유학박람회를 통해 본교 적극 홍보, 각종 국제교육전, 중국 유학박람회에 참가
6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혜택	연구기금 및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장학금 지급 확대
7	기숙사 제공	가족동반 학생에 대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기숙사 신축 관련 정책 입안중임 월20만원대 기숙사비의 3인1실 기숙사 제공 필요
8	외국인 전용 도우미	단과대학 학사지원부에 소속 외국인 학생 도우미 조교 또는 근로장학생 배치 관련 협의중
9	영문 홈페이지 강화	본교 단과대학 및 학과별 영문 홈페이지 구축
10	외국인 전형 지원자격 완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졸업 시까지 취득하도록 완화하는 정책 수립

외국인 학생 타겟팅을 위하여 학부생 모집은 입학처, 대학원생 모집은 일반대학원 학사지원팀이 각각 주관하여 단계별 모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학부생의 경우,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 중심으로 해외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 6개 대학 공동 입시설명회, 박람회, 해외 유명 고교와의 협약 등을 통해 우수한 재외국민 위주의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대학원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학부생 모집과 마찬가지로 입시설명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학생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로 입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에 대한 특성화된 영문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에 대한 주거, 장학, 서비스, 한국어 향상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하여 많은 제도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 파견 교환학생 비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66] 중앙일보 평가 결과(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6.1점(1.94%)	10위	5.7점(1.81%)	21위
서울대	3.5점(0.70%)	42위	5.7점(1.88%)	17위
연세대	6.0점(1.80%)	14위	5.7점(1.82%)	20위
성균관대	5.9점(1.77%)	15위	5.8점(1.94%)	16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지표를 통해 본교를 포함하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약 2% 이내로, 비슷한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분류별로 구분하면 교환학생(Exchange Student Program)과 방문학생(Visiting Student Program)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정 체결교 증가 등에 따라 파견학생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방문학생프로그램(VSP)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안이 확보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구미,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 등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아 영어권으로의 파견이 편중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로의 교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표 67] 분류별 파견 학생 비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교환학생	영어권	349	365	441	446	496
	비영어권	232	282	337	282	261
방문학생	본교	408	340	321	208	172
	단과대	97	122	106	126	141
계		1,086	1,109	1,205	1,062	1,070
증가율		-	2.1%	8.6%	-11.9%	0.1%

② 2011년도 목표

[표 68] 2011년도 파견 교환학생 비율 목표

지표명	파견 교환학생 비율		
11년 목표값	1.95% (579 / 29,626)	전년대비 상승률(%)	7.7%

③ 파견 교환학생 증가를 위한 본교의 노력

본교는 2011년 NAFSA에 참석하여 미국 9개교, 스페인 1개교, 터키 1개교, 총 11개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신규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한 KU-UBC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기존 TOEFL IBT 90점 이상(1군) 제한된 입학 참가기준을 76~89점(2군), 65~75점(3군)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국외 우수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UC Consortium과 교류를 재개하여 연간 100여 명의 학생교류를 목표로 UC Berkeley, UC Davis, UCLA 측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이 교육 환경이 우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국제교류세미나에 본교 교수, 국제처 교직원이 참여하여 미 협정 대학과의 협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69] 중앙일보 평가 결과(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3.3점(3.81%)	9위	3.4점(4.44%)	6위
서울대	3.1점(3.41%)	12위	2.9점(2.79%)	18위
연세대	4.7점(7.91%)	3위	4.7점(8.76%)	2위
성균관대	3.1점(3.15%)	15위	3.1점(3.31%)	12위

* 중앙일보 대학평가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지표에는 어학연수생 포함

중앙일보 평가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지표는 재학생(학부 또는 대학원) 대비 어학연수생 또는 교환학생 수로,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본교에서 어학연수 또는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 성균관대가 약 3~4%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학연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연세대는 약 8%대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교환학생(어학연수 제외)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본교 국제화가 본격화된 2006년 403명에서 2010년 895명으로 약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SEP 즉, 학생교환협정은 대상 대학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본교의 해외 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이외 드라마, 가요를 통한 한류 열풍으로 어학연수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여

본교 외국학생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70]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EP	252	330	356	473	544
단과대SEP	110	144	175	178	221
ISEP	6	11	14	18	14
VSP	35	42	46	95	116
계	403	527	591	764	895

* 어학연수생을 제외한 외국인 교환학생 수

② 2011년도 목표

[표 71]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현황 및 목표

지표명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09년값	1.31% (382 / 29,092)	'10년값	1.52% (447.5 / 29,328)
'11년 목표값	1.85% (551 / 29,626)	전년대비 상승률(%)	21.7%

* 어학연수생을 제외한 외국인 교환학생 수

③ 외국인 교환학생 증가를 위한 본교의 노력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본교 기숙사 총 20실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교환학생에 대한 충분한 기숙사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멘토를 지정하여 학기당 약 50명을 선발, 지원하는 1:1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교생은 교환학생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학생은 한글과 우리나라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협정 당사자가 각각 1:1 교환의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상대방 학생과 본교생의 수요가 각각 맞아떨어질 때 교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구미권 국가 학생들의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환경(언어, 문화

등)이 많이 갖춰지지 않아 우리나라로의 Incoming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반면, 본교생의 구미권 국가로의 Outbound 수요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및 대학에서 오는 학생의 유치를 위한 스칼라십 제공과 국제하계대학 참가 학생 3명당 본교생 1명의 비율로 교환 프로그램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 영어 강좌 비율

① 주요 대학 현황

[표 72] 중앙일보 평가 결과(학부 영어 강좌 비율)

대학명	2010년도 값	2010년도 순위	2011년도 값	2011년도 순위
고려대	15.4점(30.85%)	7위	12.4점(35.72%)	8위
서울대	10.8점(11.97%)	22위	7.9점(11.02%)	25위
연세대	14.8점(28.54%)	11위	11.2점(29.37%)	13위
성균관대	16.4점(35.18%)	6위	12.8점(38.03%)	5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학부 영어 강좌 비율 지표는 학부 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와 동일한 이름의 영어 강의가 분반으로 설치된 경우 각각의 분반을 모두 계산하며, 영어영문학과와 제2외국어 전공학과 강좌는 제외된다.

② 2011년도 목표

[표 73] 영어강좌 비율 현황 및 목표

지표명	영어강좌 비율		
'09년값	30.11%	'10년값	29.9%
'11년 목표값	30.9%	전년대비 상승률(%)	6.4%

③ 영어강좌 비율 향상을 위한 본교의 노력

2011년 1학기 영어강좌 비율은 29.2%로 목표치 대비 1.7% 모자란다. 하락 요인으로는 2003년 9월 이후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만 영어강의를 의존하고 있고, 전 강좌에 대한 영어강의 의무가 있는 신입교원이 감소

하여 즉, 재임용으로 인한 영어강의 의무 과목수가 축소(학부 1과목 이상 의무 축소)되어 영어강의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어강의 비율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강의 제공을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2003년 9월 이후 재임용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6시간 영어강의 의무 중 학부 전공과목 1강좌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둘째, 전공별 영어강의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수들을 독려, 영강 교수업적 평가 교육 관련 점수를 차별적으로 반영하고, 셋째, 영어강의 교과목 교수에게 석탑강의상 수여 시 가점을 부여하며, 넷째, 외국인 전임교원을 많이 초빙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5. 대학전체평가 결과

가. 연구 영역

연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경쟁대학에 비해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3위 서울대, 4위 서강대, 5위 연세대, 6위 성균관대, 7위 중앙대, 8위 한양대, 9위 경희대, 10위 고려대) 연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연구비 수주액과 국제논문수이며, 이 두 지표는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비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배정되는 현실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대학의 전임교원 계열별 분포는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해준다.

[표 74] 주요 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수

계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문사회계열	477	35%	594	28%	476	31%	364	29%
자연과학계열	262	19%	496	23%	299	19%	141	11%
공학계열	233	17%	328	15%	252	16%	235	19%
예체능계열	17	1%	89	4%	45	3%	43	3%
의학계열	375	27%	633	30%	473	31%	466	37%
합계	1,364	100%	2,140	100%	1,545	100%	1,249	100%

본교는 477명의 인문사회계열 교수를 확보하여 경쟁 대학인 연세대와 비슷한 숫자이지만 전체 교원 대비 비율에서는 35%로 연세대보다 4%p 높다. 하지만, 의학계열에서는 연세대보다 98명의 교원이 적으며, 비율도 4%p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근 연구비와 국제 논문이 왕성하게 배출되는 분야인 의학계열의 경쟁 대학에 비해 열세가 각종 연구 분야 수치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학술논문이 왕성하게 배출되는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본교를 비롯한 연세대, 성균관대의 전임교원이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성균관대에 비해 자연과학계열 전임교원 수는 121명이 더 많다.

결과적으로 국제학술논문 게재 수가 적다는 것은 본교가 더 연구경쟁력을 키워야 함을 의미한다.

논문의 양 뿐만 아니라 논문의 질적인 분야에서도 경쟁대학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질적인 평가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영할 때 단순히 많은 논문을 쓰기 보다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배출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내 논문의 경우, 본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인문사회 교수당 국제 논문은 35위로 저조하나, 성균관대 25위, 연세대 34위, 서울대 39위, 한양대 49위, POSTECH 84위로 비교 경쟁 대학과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하게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치중한 학술 연구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인문사회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본교 3위, 성균관대 4위, 연세대 5위, 서울대 9위로 인문사회계열의 연구 역량이 타 대학보다 다소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본교가 우세한 인문사회계열의 연구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의 경쟁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기금 확보, 연구 환경 조성, 각종 제도 보완 등 다각적이고 전교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의 차별화된 노력 또한 요구된다.

나. 교육 영역

[표75] 주요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1 대학알리미 자료)

(단위:명)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5.1	16.1	23.4	23.8

[표 74] 주요 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수 및 [표 75] 주요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볼 수 있듯이 본교는 비교 경쟁대학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가 적은 실정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우수 전임교원 확보이다. 이를 위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 연구실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종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원 확충을 통한 우수 전임교원 확충 노력이 가능한 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향후 교원 선발 임용시 우수한 전임교원 선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교의 기숙사 확보율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82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서울 안암동 및 정릉에 위치한 본교의 특성으로 기숙사 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학생, 대학원생 확보에 필수적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housing 제공은 기숙사 확보율 뿐만 아니라 국제화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 확보를 통해 교육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부자 발굴, 지식재산권 확보에 따른 기술이전 수입 증가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대학에 대한 자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과 교육비 투자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원 배출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 배출을 위해 교내 학술 프로그램,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뿐 아니라 인턴십 트레이닝을 외부에서 일정 기간 수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점 연계, 관련 비용 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다. 국제화 영역

본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47위, 연세대 63위, 서울대 66위로 경쟁대학에 비해 우수하지만 전체 순위로 보았을 때는 낮은 수준이며,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은 본교 7위, 서울대 1위, 연세대 4위로, 경쟁대학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국내 대학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두 지표 모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교원의 확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외국인 교원의 확충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와 국제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화된 환경 제공과 경쟁력 있는 교과목을 외국인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질 좋은 강의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양적인 국제화를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으나, 우수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역효과를 초래하여 본교의 수준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적인 국제화와 더불어 질적인 국제화를 지향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우수한 제3세계 외국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영어강의의 질 향상,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 외국인 전용 기숙사 확보 등 국제화 환경 제공을 위한 투자와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IV. 부설연구기관 평가

1. 평가목적

교내 부설연구기관의 정기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설립 목표와 연구활동, 실행계획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독려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증대시키며 세부적으로는 조직 및 지원체계, 연구활동, 운영 등 각 조직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조직 및 지원체계, 연구활동, 연구소운영 분야의 3개 분야로 하고, 세부항목으로는 인문 및 사회계열 22개, 이학 및 공학계열 24개, 의학계열은 23개로 나누어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

- ① 평가계열 :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의학계로 총 5개 계열
- ② 평가항목 : 매 정기평가 시 관련위원회에서 승인된 기준 및 배점(안)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인문.사회계열 75:25(정량:정성), 이학계열 82:18(정량:정성), 공학계열 76:24(정량:정성), 의학계열 75:25(정량:정성)의 비율로 평가한다.
- ③ 평가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④ 평가자료 입력 및 채점방법 : 연구처에서 시행하는 정기평가 시 입력기간 내에 KUPID에서 해당연구소별로 평가자료 입력
 - 정량평가항목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 정성평가항목은 연구소별로 자료를 출력하여 계열별 평가위원이 시스템에서 온라인 채점한다.

3. 평가대상 연구소 현황

2011년 1월 1일 기준 평가대상연구소는 모두 117개(설립이후 1년 미만 4개 포함)로 계열별 연구소는 인문계 23개, 사회계 26개, 이학계 18개, 공학계 18개, 의학계 32개이며, 설립 1년 미만 연구소와 민족문화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공학기술연구소는 '최우수명예연구소'로 3년간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나, 모든 부설연구기관은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의 실적자료를 입력하였다.

[표 76] 평가대상 연구소 현황(인문계, 사회계)

	인문계	사회계
1	고고환경연구소	경제연구소
2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경제통계연구소
3	독서논술연구소	고등교육정책연구소
4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과학기술학연구소
5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6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	교육문제연구소
7	러시아·CIS연구소	기업경영연구원
8	번역과레토릭연구소	기업지배구조연구소
9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10	언어정보연구소	두뇌동기연구소
11	역사연구소	법학연구원
12	영미문화연구소	부부상담연구소
13	영어교육연구소	사회정서발달연구소
14	응용문화연구소	사회체육연구소
15	일본연구센터	산업개발연구소
16	중국학연구소	세계지역연구소
17	지혜과학연구센터	스포츠과학연구소
18	철학연구소	아세아문제연구소
19	한국사연구소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정보문화연구소
21	한국사회연구소	정부학연구소
22	한국학연구소	지속발전연구소(명칭변경)
23	한자·한문연구소	통계연구소
24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명칭변경)
25		행동과학연구소
26		EU연구센터

[표 77] 평가대상 연구소 현황(이학계, 공학계, 의학계)

	이학계	공학계	의학계
1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건축·도시연구소	간호학연구소
2	계량금융기술연구소	나노바이오공학연구소	근거중심의학연구소
3	광전자신소재연구소	뇌공학연구소	노인건강연구소
4	기초과학연구소	반도체기술연구소	바이러스병연구소
5	나노과학연구소	방재과학기술연구소(명칭변경)	바이오메디컬연구소
6	미래네트워크연구소(명칭변경)	산업기술연구소	법의학연구소
7	생명공학연구소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	보건과학연구소
8	생명자원연구소	정보·통신기술연구소	부인암연구소
9	식품생의학안전연구소	정보보호연구원	신경과학연구소
10	와인연구소	지하공간기술연구소	신장병연구소
11	자연과학연구소	차세대게임연구센터	신종전염병연구소
12	전략광물자원연구소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심장혈관연구소
13	정보창의교육연구소	차세대인터넷연구센터	암연구소
14	통신수학연구소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	여성의학연구소
15	한국검출기연구소	청정화공시스템연구소	여행의학연구소
16	한국곤충연구소	초고층·초장대기술연구소	유전병연구소
17	환경 GIS RS 센터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의료법학연구소
18	환경생태연구소	환경기술·정책연구소	의사소통장애연구소
19			인간유전체연구소
20			인간행동과유전자연구소
21			임상치의학연구소
22			임프란트연구소
23			재생의학연구소
24			정신건강연구소
25			줄기세포연구소
26			척추측만증연구소
27			통합의학연구소
28			피부영상의학연구소
29			한국분자의학·영양연구소
30			한국인공장기센터
31			환경의학연구소
32			희귀질환연구소

4. 평가위원

2011년 3월 1일 현재 위원장 1인, 위원 11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표 78] 연구소 평가위원회 현황

직책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남기춘	문과대학 심리학	연구처장
위원	안호용	문과대학 사회학	인문
“	윤재민	문과대학 한문학	인문
“	김연태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김선혁	정경대학 행정학	사회
“	최동훈	이과대학 화학	이학
“	황한준	과학기술대학 식품생명	이학
“	최우천	공과대학 기계공학	공학
“	강재우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	공학
“	김지형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	공학
“	이순혁	의과대학 정형외과	의학
“	이민석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	의학
간사	김문규	연구처 연구진흥팀	팀장

1. 실무책임자 : 김문규 연구진흥팀장
2. 실무자 : 김정현(연구진흥팀), 강이지(산학협력단 경영지원부, 전산지원)

5. 평가일정

- 연구소평가 주요추진 일정

[표 79] 주요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011.03	평가기준 및 배점 확정	
2011.03.10(목)	연구기관심의위원회 개최	2011년 평가(안) 보고
2011.03.31(목)	우수기관장 간담회 개최	
2011.04.12(화)	정기 평가 공고	각 연구소별 공문발송
2011.04.12(화)~05.11(수)	각 연구소 평가자료 입력	
2011.05.12(목)~05.27(금)	평가자료 1차 검토	
2011.05.30(월)~06.01(수)	정성평가자료 인쇄	
2011.06.02(목)	연구기관심의위원회 개최	정성평가자료
2011.06.02(목)~06.24(금)	정성평가 채점	연구기관심의위원회 평가
2011.06.27(월)~07.15(금)	평가자료 2차 검토	
2011.07.18(화)~07.22(금)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2011. 08.	연구기관심의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보고
2011. 09.	평가결과조치	
2011. 10.	포상 및 시상식	

6. 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등급기준

- ① 계열별로 3등급(상, 중, 하)으로 나눈다. 등급별 기준은 [표 80]과 같다. 단, 등급선정 기준은 매년 관련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경고' 조치한다.

[표 80] 등급분류기준

구분	상	중	하	비고
사회계 의학계	60점이상	60점 미만 하위20%이상	하위 20% 미만	절대평가
인문계 이학계 공학계	상위 20% 이상	상위20%미만 하위20%이상	하위 20% 미만	계열내 상대평가

- 1) 인문계, 이학계, 공학계 연구소가 계열내 상대평가로 인해 하향평준화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음

이상의 기준에서의 등급별 분류 현황은 [표 81]와 같다.

[표 81] 계열별 등급현황

구분	상	중	하	계
인문계	4	15	4(2)	23
사회계	7	14	5	26
이학계	2	13(2)	3(1)	18
공학계	3	12	3	18
의학계	2	24	6(1)	32
계	18	78	21	117

☞ ()의 숫자는 2010년 1월 이후 신설된 연구소 현황

나. 연구소 포상 및 지원제도(안)

① 연구소 포상내용

- ㉠ 최우수명예연구소(연속 3회 혹은 총 5회 최우수) : 표창 및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인증서수여
- ㉡ 최우수연구소 (각 계열별 1위) : 표창 및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 ㉢ 우수연구소 (각 계열별 2위) : 표창 및 5백만원 이내의 포상금
- ㉣ 특별상 (전년대비 주목할 실적이 있는 곳 ; 관련위원회 선정) : 표창 및 5백만원 이내의 포상금

② 주요지원

- ㉠ 평가결과 명예 및 상위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 연구교원 지원사업의 유급연구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 평가결과 명예 및 상위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 등 교내학술활동사업에서 우선선정 및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여부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구처장이 결정한다.

③ 2010년 정기평가 포상연구소

[표 82] 최우수 및 우수 연구소

구분	최우수명예연구소	최우수연구소	우수연구소
인문계	-	일본연구센터	한국학연구소
사회계	-	아세아문제연구소	정부학연구소, 경제연구소 ¹⁾
이학계	-	생명공학연구소	생명자원연구소
공학계	-	반도체기술연구소	청정화공시스템연구소
의학계	-	환경의학연구소	보건과학연구소

1) 평가결과 '최우수연구소'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차순위 연구소 2곳을 '우수연구소'로 선정함